다원예술분야 지원 창작성과 공유 및 확산(2009–2012)

arts change the world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2013. 4

창립 40주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73-2013

다원예술분야 지원 창작성과 공유 및 확산 (2009-2012)

arts change the world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2013. 4

창립 40주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73-2013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2013년 4월 인쇄
2013년 4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83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26-1)
전화 02-760-4500, 4600
팩스 02-760-4709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이 보고서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2013. 4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다원예술분야 지원 창작성과 공유 및 확산 (2009-2012)'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4월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몸꼴
책임자문 : 이승엽 _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연 구 진 : 고주영 _ 독립기획자
신민경 _ 독립기획자
신혜원 _ 몸꼴 프로듀서
유병진 _ 독립기획자
연구진행 : 김은옥 _ 문화이끔이 꼴
진행총괄 : 김윤희 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전문위원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2. 연구의 방법과 체계 16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18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1.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영역 20
2. 지원 현황 23
3. 지원 대상 활동 분석 42

제3장 결 론
1. 최근 4년 간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특징 62
2.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제언 65
3. 후속 연구 제안 67

첨부자료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 목록(2009-2012) 70
2. 릴레이 간담회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말하다' 주요 논의 내용 80
3. 오픈포럼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주요 토론 내용 84

참고문헌 97

표 목차

표 1.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지원건수 및 연구 대상 건수 17
표 2.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활동유형 구분 20
표 3. 다원예술 지원대상 활동의 내용 및 형식 분석 기준매체 21
표 4.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신청, 선정 추이 및 선정률 23
표 5. 연령별 지원 건수 24
표 6. 활동 지역별 지원 건수 26
표 7. 개인/단체별 지원 건수 27
표 8. 활동유형별 지원 건수 28
표 9. 연령별 활동유형별 지원 건수 29
표 10. 지역별 활동유형별 지원건수 30
표 11. 지역별 활동유형별 비율 31
표 12. 개인/단체별 활동유형별 지원 건수 32
표 13. 개인/단체별 활동유형별 비율 32
표 14. 전체 연속 지원 현황 33
표 15. 개인/단체별 연속 지원 현황 34
표 16. 연령별 연속 지원 현황 34
표 17. 활동유형별 연속지원 현황 35
표 18. 매체실험성별 연속지원 현황 35
표 19. 가치지향별 연속지원 현황 36
표 20.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 사업 지원액 규모 36
표 21. 지원금액 구간별 건수 37
표 22. 2012년 장르별 건당 평균 지원금액 38
표 23. 연령별 건당 평균 지원금액 39
표 24. 활동유형별 건당 평균 지원금액 39
표 25. 매체실험성 전체 현황 42
표 26. 연령별 매체실험성 현황 43
표 27. 지역별 매체실험성 현황 45
표 28. 지역별 매체실험성 변화 추이 46
표 29. 개인/단체별 매체실험성 현황 47
표 30. 장르실험의 기반장르 비율 48
표 31. 복합장르의 기반장르 비율 49
표 32. 매체실험성 전체 현황 50
표 33. 연령별 가치지향성 현황 51
표 34. 지역별 가치지향성 현황 53
표 35. 지역별 가치지향성 현황 53
표 36. 개인/단체별 공공성/종다양성 지향 현황 54
표 37. 활동유형별 가치지향성 현황 55
표 38.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의 영역별 분포 57
표 39. 가치지향성–매체실험성 척도별 비율 추이 59

그림 목차

그림 1.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 22
그림 2.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추이 23
그림 3. 지원대상자의 연령별 구분 25
그림 4. 지원대상자의 연령별 비율 25
그림 5. 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26
그림 6. 지원대상자의 개인/단체 비율 추이 27
그림 7. 활동유형별 비율 추이 28
그림 8. 연령별 활동유형별 비율 30
그림 9. 지역별 활동유형별 비율 31
그림 10. 개인/단체별 활동유형별 비율 32
그림 11. 건당 평균 지원금액 분포 37
그림 12. 건당 지원금 구간별 변화 추이 38
그림 13. 매체실험성 비율 추이 42
그림 14. 만 35세 이하 매체실험성 분포 44
그림 15. 만 36세 이상 예술가 매체실험성 분포 44
그림 16. 지역별 매체실험성 변화 추이 46
그림 17. 지원대상자 유형별 매체실험성 분포 47
그림 18. 장르실험의 기반장르 변화 추이 48
그림 19. 가치지향성 변화 추이 50
그림 20. 만 35세 이하 지원대상의 가치지향성 분포 51
그림 21. 만 36세 이상 지원대상의 가치지향성 분포 52
그림 22. 지역별 가치지향성 추이 53
그림 23. 개인/단체별 공공성/종다양성 지향 비율 54
그림 24. 활동유형별 가치지향성 비율 56
그림 25.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의 영역 구분 57
그림 26.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의 영역별 비율 추이 58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체계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다원예술'은 2005년 이후 우리 예술현장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다. 낯설고 새롭고 폭 넓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확산되어 왔으며 '다원예술'을 핵심 콘텐츠로 삼는 축제, 공간, 매체 등의 숫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다원예술의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는 공공/민간기관, 지원제도들도 생겨났다.

□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다원예술'이 지원분야로서 명시되고 정책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6년, 문예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편되고, 민간참여/연구단위인 소위원회 중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다원예술 소위원회는 초기 다원예술을 "기존의 문화예술 정책의 틀에서 소외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집합적 용어"[1]로 보고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으로서,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되, 이 개념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념정의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은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다원예술'이라는 개념어가 1) 미학적 장르 개념이 아닌 지원정책상 대상의 설정(예를 들어 지원분야 중 '문화일반'과 같은 수위) 2) 기존 장르개념에서 포함되지 못한 채 남겨진 것을 거둔 수동적인 개념, 3) 다양한 현상을 포함하지만 새로운 예술현상의 핵심적인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개념정의상의 문제로 밝힌 바 있다[2].

□ 사회/미디어 환경 변화 등 문화예술 외부적 환경 변화와, 예술교육, 예술경영 분야의 강화, 지역 문화예술 정책 및 예산 확대, 협업 및 공동작업 등의 창작기법 확산, 통섭예술의 강조 등 기존의 문화예술 창작-유통-향유의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흐름의 변화들이 2006년 이후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예술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되 '젊은 예술', '실험예술'이 핵심이었던 2006년 당시의 '다원예술'과는 다

1)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12) p.21

2) 동 연구보고서, pp.45-46.

른 양상의 '다원예술'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 다원예술은 예술 현장의 정책 요구와 수용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 자체의 절대적 정의가 아닌, 국내외 예술의 흐름, 창작의 경향 등에 맞춰 상대적으로 정의 내려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속적인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정의와 이를 뒷받침할 창작지원의 형태를 주기적으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6년과 2008년에 다원예술에 관한 현황 분석과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소위원회 해체 이후 다원예술 개념의 재정 의를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현황 관찰의 명맥은 끊어진 상태이다.

□ 따라서, 이번 연구는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원적' 예술활동을 정책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수용하여 유효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밑받침이 될 '다원예술'의 최신 현황과 지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2. 연구 방법

1) 연구범위 설정

□ 연구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선정단체
※ 단, '연속지원' 외의 통계는 성과보고서 제출 단체/개인만을 유효 대상으로 설정
※ 2010년 동 사업 수혜자 중 '다원예술매개공간 지원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기간 : 2009년–2012년
□ 유효대상 건수 : 164건(전체 188건 지원 선정 대상 중 무료 24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은 여타 장르의 창작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이하 실다지)이 중심을 이룬다. 그 외에 예술행사 지원, 예술 관련 정기간행물 발간 지원,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도 다원예술로 명기된 지원사업이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기획, 실행하는 기획사업도 존재한다.

□ 이번 연구에서는 실다지 사업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되, 기타 지원프로그램 내의 다원예술 부분과 기획사업(이하 기타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1장의 마지막에 간단히 정리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2010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원예술매개공간 지원사업'이 실다지 사업 안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른 해에는 이것이 다른 지원프로그램의 다원예술 분야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연속적인 분석을 위해 이를 기타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 실제 분석은 지원이 결정된 예술단체/개인의 지원신청서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사업 중도포기나 성과보고서 미제출 단체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 선정 자체에 대한 의미부여가 가능한 '연속지원'에 대한 분석의 경우, 모든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1장 서론

□ 연구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마지막으로 발간한 연구결과 보고서인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2008.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이다.

□ 위와 같은 연구범위 설정의 결과, 2009년 이후 4년간에 걸친 실다지 지원대상자 중 이번 연구 대상자의 수는 아래 표의 '유효 건수'에 해당한다.

〈표 1〉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 지원건수 및 연구 대상 건수

구분	총 지원대상 건수	유효 건수 (연구대상 건수)	무효 건수
2012	39	37	2
2011	38	36	2
2010	51	46	5
2009	60	45	15
소계	188	164	24

2) 연구방법

□ 다원예술 분류를 위한 매트릭스 설계 : 내용적 측면(가치)과 형식적 측면(매체)으로 구분

□ 지원선정사업 분석 : 지원신청서, 성과보고서에 근거한 각 프로젝트의 내용, 형식 분석

□ 최근 4년 간의 지원 특징 분석 및 제언

제1장 서론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1) 기대효과

□ 상술한 바와 같이 다원예술의 개념은 현황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최근 4년 간의 다원예술 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선행연구와의 통시적 고찰을 통해 다원예술의 변화 추이와 양상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다원예술'의 개념을 최근의 현황에 근거하여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련한 지원정책의 개발,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계

□ '다원예술'과 관련한 지원제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을 필두로 여러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프로그램의 명칭이나 운영도 다변화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다지 지원선정 단체/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원예술의 전체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다.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1.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영역
2. 지원 현황
3. 지원 대상 활동 분석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1.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영역

1) 지원대상 활동유형의 분류

□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장르의 창작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작품의 창작 및 발표(공연/전시) 외에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활동의 특징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대상의 활동유형 구분

유형 구분	정의와 범주
단일 작품 발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작품을 창/제작하여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집합적 기획	복수의 예술가가 각자의 작품을 발표하거나, 작품발표와 이에 수반하는 학술행사, 워크숍 등의 부대행사가 주요한 기획을 구성하는 경우
축제	종합예술제 성격의 행사
워크숍	작품발표 외에 창작자들의 협업과정을 중시하는 기획
교육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매체발간/연구	정기/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연구결과물을 내는 활동

2) 지원대상의 내용 및 형식 분석 : 매체실험성 – 가치지향성 매트릭스

□ 2013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 사업의 목적을 '기성 장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실험적인 예술 및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예술의 창조적 종다양성을 확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실다지 지원 대상의 핵심가치를 형식 측면에서의 '매체실험성'과 내용 측면에서의 '가치지향성'으로 보고, 이 둘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의 활동을 분류한 뒤,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 다원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가치와 매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한국문화예술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위원회가 주관한 2006년과 2008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지만, 각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척도는 창작환경과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3]. 이번 연구 역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매체실험성과 가치지향성의 척도의 개념을 현재 시점에 맞게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였다.

- 2012년의 연구에서 '매체실험성'은 기성 장르 영역 밖에서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을 의미한다. 실험의 양태에 따라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 기타로 유형화하였다.
- '가치지향성'은 동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술의 창조적 종다양성 확대에 기여하는 내용적 속성을 의미한다. 예술활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사회참여, 공공성, 종다양성, 미학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매체실험성과 가치지향성을 구성하는 세부 척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정의한다.

〈표 3〉 다원예술 지원대상 활동의 내용 및 형식 분석 기준

구분	세부 척도	정의와 범주	예시
매체실험성	장르실험	기존 장르에서 출발했으나, 장르 규범 밖에서 형식 실험을 하는 경우	non-linear theatre, multimedia dance and music, multidimensional installation, site-specific performance
	복합장르	기존 장르예술의 형식과 내용이 여러 층위가 겹치고, 다른 장르 예술가와 공동창작을 하는 경우	multidisciplinary arts
	탈장르	다른 학문이나 과학 기술과의 리서치 및 공동작업을 통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양식을 보여주는 경우	interdisciplinary arts, science/art collaborations
	기타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미학적 형식 실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프로젝트	

3)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12) pp.27-28과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12) p.30, p.139 참조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구분	세부 척도	정의와 범주	예시
가치지향성	사회 참여	현장을 기반으로 사회현실에 대해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직접적인 사회참여적 예술실천과 문화행동	politically engaged art
	공공성	지역문화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벌이는 작업과정[4]	community partnership
	종다양성	다양한 창작 결과물을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와 기성예술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생적 예술활동	multi-cultural festivals, indie music, sub culture
	미학중심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지 않으며,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표현양식의 실험과 확장을 프로젝트의 우선가치로 삼는 경우	

□ 또한, 연구진은 위의 구분과 정의에 따라 매체실험성과 가치지향성을 기준으로 한 분석 매트릭스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최근 4년 간의 실다지 지원대상의 활동과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림 1〉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

가치지향	매체실험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 장 르	기 타
사회참여				
공 공 성				
종다양성				
미학중심				

□ 위 매트릭스에 따르면 가치지향의 네 가지 척도, 매체실험의 네 가지 척도로 분류되므로 지원대상의 활동은 각 척도가 교차하는 16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는 다시 가치지향만을 추구하는 유형, 매체실험만을 추구하는 유형, 가치지향과 매체실험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형의 세 범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분석 매트릭스에 따른 통계와 분석은 제2장의 3절과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4) 다원예술이 가진 가치지향성의 범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의 문화참여, 문화향수 증진을 위한 시민문화는 공공예술의 영역에서 별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예. 퍼블릭아트, 생활예술)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2. 지원현황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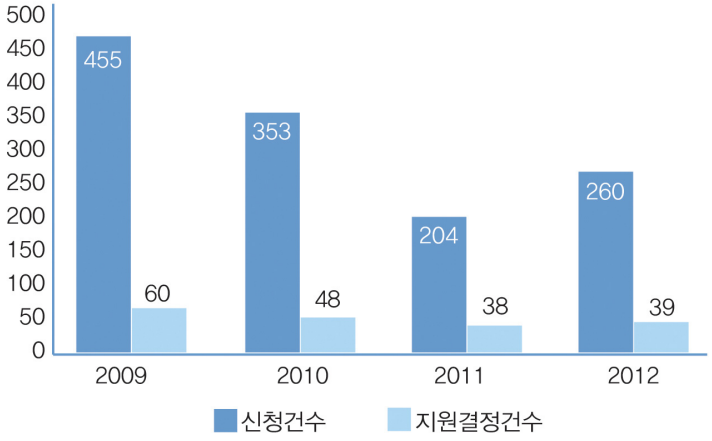
□ 전체 지원 규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공모 지원사업 중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이하 실다지) 대상 지원건수는 2009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신청, 선정 추이 및 선정률

	신청 건수	지원결정 건수	선정률
2009	455	60	13.2%
2010	353	48	13.6%
2011	204	38	18.6%
2012	260	39	15.0%
합계	1,272	185	14.5%

〈그림 2〉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추이



– 전체 공모신청 건수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줄어든 것은, 다원예술 지원정책 초기,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다른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예술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다원예술로 몰렸다가, 제도 정책 3-4년차를 넘어가면서, '실험성 및 다양성'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용어로 다원예술의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감소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 지원대상자 연령

– 지원대상자(단체의 경우 단체 대표자)의 연령을 만 35세 이하와 만 36세 이상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만 35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시했거나 실시중인 '아르코 영아트프론티어(AYAF)',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의 지원가능 연령으로, 이로 미루어보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만 35세 이하를 '젊은 예술가', '신진 예술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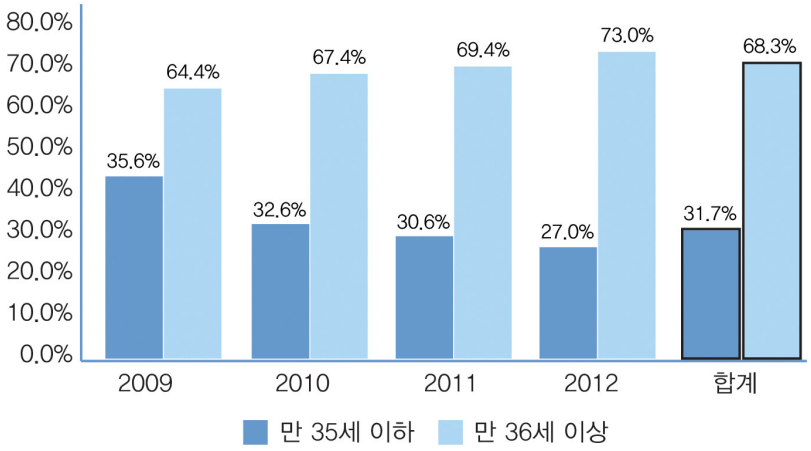
〈표 5〉 연령별 지원 건수

구분	만 35세 이하	만 36세 이상	합계
2009	16	29	45
2010	15	31	46
2011	11	25	36
2012	10	27	37
소계	52	112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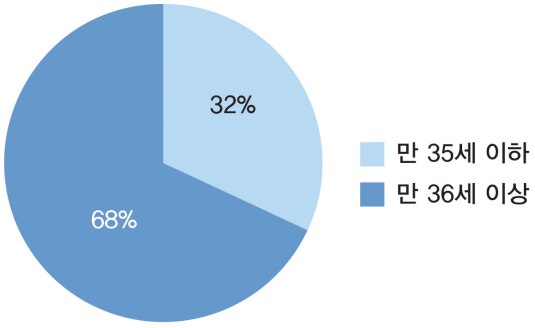
– 위 표를 백분율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 2009년 실다지 지원대상 중 35%가 만 35세 이하의 신진예술가였던 것에 반해, 2010년부터 조금씩 신진예술가의 비율이 줄어 2012년에는 27%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 간 평균비율은 만 35세 이하가 31.7%, 36세 이상이 68.3%를 차지하여 만 36세 이상의 예술가에 대한 지원비율이 신진예술가의 두 배에 이른다.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그림 3〉 지원대상자의 연령별 구분(%)



〈그림 4〉 지원대상자의 연령별 비율(4년 간 합계, 백분율)



□ 지원대상자 활동 지역

–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활동지역을 구분해보았다.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지원신청서 내 소재지로 구분하였는데, 소재지와 활동지역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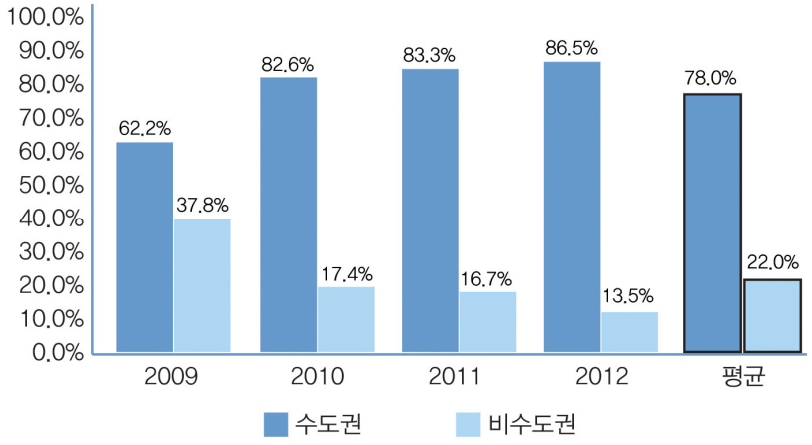
–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기타 국내(상이한 2개 이상의 권역에 걸쳐 활동), 전국(3개 이상의 권역에 걸쳐 활동), 해외로 구분하였다.

〈표 6〉 활동 지역별 지원 건수

구분	서울	경기/인천	기타국내	전국	해외	합계
2009	25	3	8	6	3	45
2010	35	3	5	2	1	46
2011	28	2	3	1	2	36
2012	29	3	4	1	0	37
소계	117	11	20	10	6	164

– 위의 표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의 활동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집중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도권/비수도권)



– 2009년의 경우 수도권 집중 비율이 60%대에 그쳤던 반면, 2010년부터는 80% 이상의 실다지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0년부터 본격화된 지역문화재단의 창설과 지원사업 본격화를 한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지원대상자의 성격 : 개인/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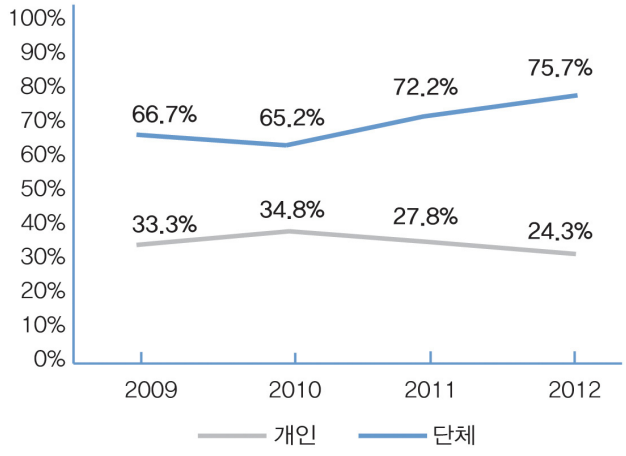
– 실다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개인이 신청/수혜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7〉 개인/단체별 지원 건수

구분	개인	단체	합계
2009	15	30	45
2010	16	30	46
2011	10	26	36
2012	9	28	37
소계	50	114	164

–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개인에 대한 지원비율은 2009년 33.3%에서 2010년 34.8%, 2011년 27.8%, 2012년 24.3%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그림 6〉 지원대상자의 개인/단체 비율 추이



2) 활동유형

□ 실다지의 경우 다른 창작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작품의 창작 및 발표(공연/전시) 외에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실다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류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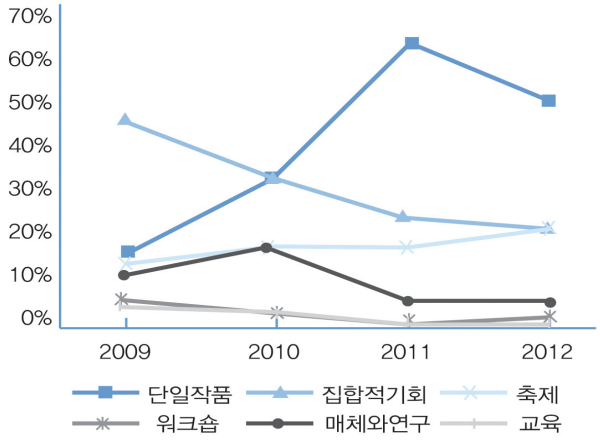
□ 활동유형 : 전체

– 제2장 1절의 활동유형에 대한 개념정리에 따라 2009–2012년 4개년 간 실다지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활동유형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활동유형별 지원 건수

구분	단일 작품	집합적 기획	축제	워크숍	매체/ 연구	교육	합계
2009	7	20	6	4	5	3	45
2010	14	14	7	2	7	2	46
2011	22	8	5	0	1	0	36
2012	18	8	8	2	1	0	37
소계	61	50	26	8	14	5	164

〈그림 7〉 활동유형별 비율 추이



– 4년 간 추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집합적 기획이 44.4%, 단일작품 발표가 15.6%였던 반면, 이듬해인 2010년에는 집합적 기획과 단일작품이 동일하게 30.4%를 차지한다. 그 이후부터는 집합적 기획보다 단일작품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2011년의 경우 단일작품이 61.1%, 집합적 기획이 22.2%, 2012년에는 단일작품이 48.6%, 집합적 기획이 21.6%를 차지했다.

– 축제의 경우 지원건수는 4년 간 대동소이하나, 비율적으로는 2009년 13.3%, 2010년 15.2%, 2011년 13.9%, 2012년 21.6%로 서서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매체발간과 연구의 경우 2009-2010년의 경우 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비율이 줄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지원프로그램인 정기간행물 발간지원에서 '다원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시작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경우도 2009-2010년까지는 소수나마 명맥을 유지했으나 2011년 이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받는 케이스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교육 전문지원기관이 생기고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 활동유형 : 연령별

〈표 9〉 연령별 활동유형별 지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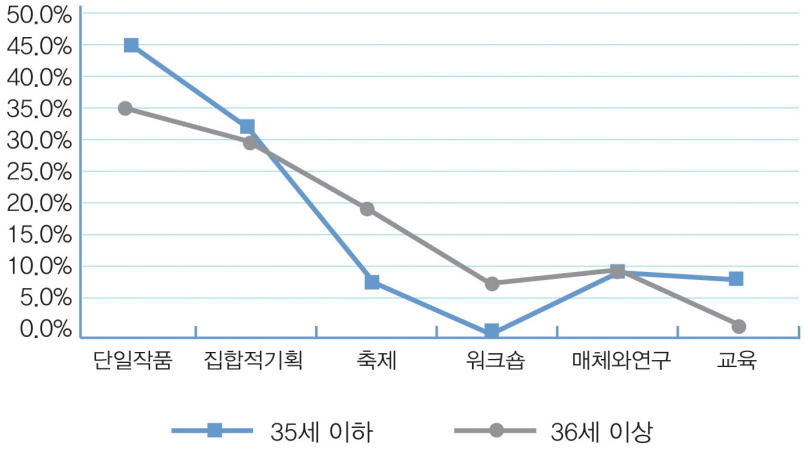
(Ⅰ-만 35세 이하, Ⅱ-만 36세 이상)

구분	단일작품		집합적 기획		축제		워크숍		매체/연구		교육		합계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2009	3	4	3	17	2	4	0	4	3	2	2	1	13	32
2010	7	7	2	12	1	6	0	2	0	7	1	1	11	35
2011	4	18	4	4	0	5	0	0	0	1	0	0	8	28
2012	3	15	3	5	0	8	0	2	0	1	0	0	6	31
소계	17	44	12	38	3	23	0	8	3	11	3	2	38	126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그림 8〉 연령별 활동유형별 비율

※ [표9]의 4년간 소계에 대한 비율



- 4년간의 지원대상자의 활동유형을 살펴보면 연령을 불문하고 단일작품이나 집합적 기획활동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으나, 축제나 워크숍, 매체발간과 연구 등 작품발표 외의 활동은 비교적 만 36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2011년 이후 만 35세 이하에게는 작품/기획 발표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활동유형 : 지역별

〈표 10〉 지역별 활동유형별 지원건수

	구분	단일작품	집합적 기획	축제	워크숍	매체/ 연구	교육	합계
수도권	2009	2	16	3	3	2	2	28
	2010	12	12	6	1	5	2	38
	2011	19	6	5	0	0	0	30
	2012	16	8	6	1	1	0	32
	소계	49	42	20	5	8	4	128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구분	단일작품	집합적 기획	축제	워크숍	매체/ 연구	교육	합계
비수도권	2009	5	4	3	1	3	1	17
	2010	2	2	1	1	2	0	8
	2011	3	2	0	0	1	0	6
	2012	2	0	2	1	0	0	5
	소계	12	8	6	3	6	1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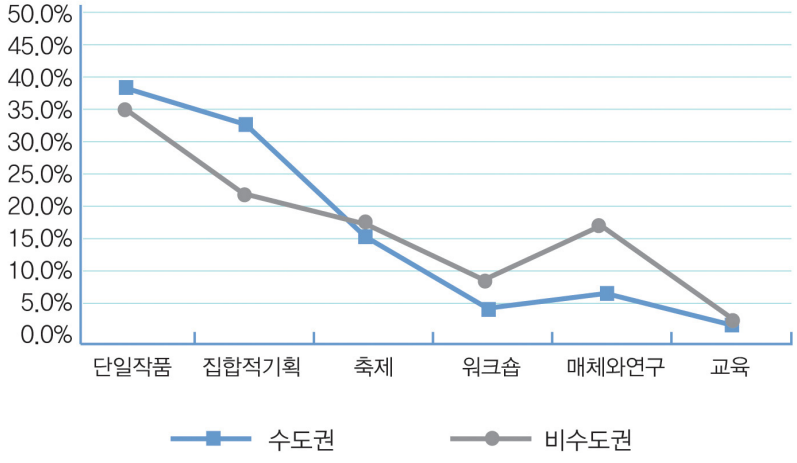
– 아래 표를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공히 단일작품이나 집합적 기획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나, 수도권에서 3.9%에 그친 워크숍의 비율이 그 외 지역에서 8.3%로 두 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매체발간과 연구 역시 그 외 지역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11〉 지역별 활동유형별 비율

※ [표 10]의 4년간 소계에 대한 비율

구분	단일작품	집합적기획	축제	워크숍	매체/연구	교육	합계
수도권	38.3	32.8	15.6	3.9	6.3	3.1	100
비수도권	33.3	22.2	16.7	8.3	16.7	2.8	100

〈그림 9〉 지역별 활동유형별 비율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활동유형 : 개인/단체별

〈표 12〉 개인/단체별 활동유형별 지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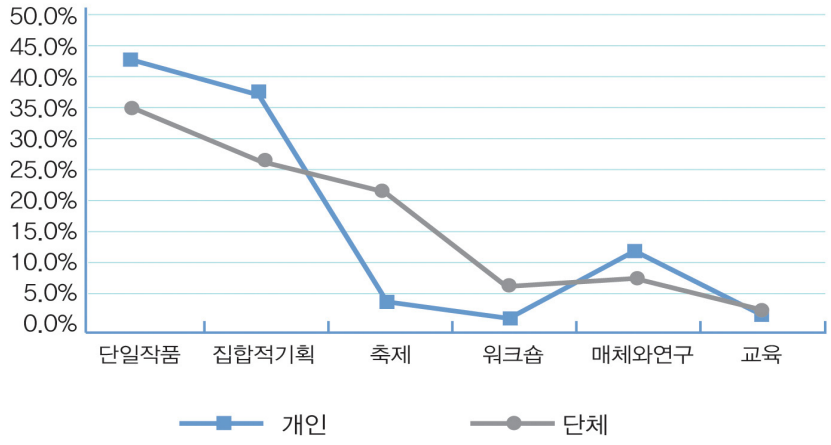
	개인					단체				
	2009	2010	2011	2012	전체	2009	2010	2011	2012	전체
단일작품	4	5	8	4	21	3	9	14	14	40
집합적기획	7	6	2	4	19	13	8	6	4	31
축제	1	1	0	0	2	5	6	5	8	24
교육	0	1	0	0	1	3	1	0	0	4
워크숍	1	0	0	0	1	3	2	0	2	7
매체/연구	2	3	0	1	6	3	4	1	0	8
합계	15	16	10	9	50	30	30	26	28	114

〈표 13〉 개인/단체별 활동유형별 비율

※ [표 12]의 4년간 소계에 대한 비율

구분	단일작품	집합적기획	축제	워크숍	매체/연구	교육	합계
개인	42.0	38.0	4.0	2.0	12.0	2.0	100
단체	35.1	27.2	21.1	6.1	7.0	3.5	100

〈그림 10〉 개인/단체별 활동유형별 비율



다원예술분야 지원 창작성과 공유 및 확산 (2009–2012)

- 개인/단체 모두 단일작품, 집합적 기획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단체보다 개인에서 단일작품, 집합적 기획, 매체발간 및 연구의 발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활동은 단체가 주도하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특히 축제, 워크숍의 경우 단체가 주도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 조사대상자 전체의 활동유형과 비교하면, 개인의 단일작품, 집합적 기획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3) 연속지원 경향성

□ 연속수혜는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 개념이 자리매김했다는 상징이다. 연속수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에서 파악하는 '다원'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연속수혜 대상자들의 구성, 활동내용을 파악하되, 연속 수혜는 '선정'자체가 유의미하므로 전체 선정자를 표본으로 한다.

□ 전체경향

-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총 14개이며, 3년 연속은 총 9개, 4년 연속은 총 2개로 총 25개 대상자가 연속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4년 간의 전체 지원대상자 188개 중 연속 지원 대상자의 중복계수를 제외한 150개 개인/단체의 16.7%에 해당한다.

〈표 14〉 전체 연속 지원 현황

구분	갯수
2년 연속 지원	14개
3년 연속 지원	9개
4년 연속 지원	2개
합계	25개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개인/단체별 연속 지원 현황

〈표 15〉 개인/단체별 연속 지원 현황

	2년	3년	4년	합계
개인	3	0	0	3
단체	11	9	2	22
합계	14	9	2	25

– 연속지원 대상자 중 88%에 해당하는 22개 대상자가 단체로 활동하는 예술가이며, 12%에 해당하는 3건만이 개인예술가였다. 3년-4년 연속지원 대상자는 전체가 단체로 활동하는 예술가였다.

□ 연령별 연속 지원 현황

〈표 16〉 연령별 연속 지원 현황

	2년	3년	4년	합계
만 35세 이하	2	2	1	5
만 36세 이상	12	7	1	20
합계	14	9	2	25

– 첫 지원 수혜 연도의 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속 지원 대상자 25건 중 5건이 신진(만 35세 이하)에 속한다. 2년 연속지원 대상 14개 중 14.3%에 해당하는 2개, 3년 연속지원 대상 9개 중 22.2%에 해당하는 2개, 4년 연속지원 대상 중 절반에 해당하는 1개가 신진예술가였다.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활동유형별 연속지원 현황

〈표 17〉 활동유형별 연속지원 현황

	2년	3년	4년	합계
단일작품 발표	5	5	0	10
집합적기획	4	0	1	5
축제	3	2	1	6
워크숍	2	1	0	3
교육	0	0	0	0
매체발간/연구	0	1	0	1
합계	14	9	2	25

– 연속 지원 대상자의 활동유형은 단일작품 발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을 축제가 잇고 있다. 전체 활동유형 비율보다 연속 지원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정기적인 개최를 전제로 하여 벌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전제를 갖고 있는 매체발간 및 연구의 경우 전체 활동유형에서의 비율보다 연속 지원에서의 비율이 훨씬 떨어진다.

□ 매체실험성별 연속지원 현황

〈표 18〉 매체실험성별 연속지원 현황

	2년	3년	4년	합계
실험성 있음	8	7	0	15
실험성 없음	6	2	2	10
합계	14	9	2	25

– 제2장 1절에서 정리한 매체실험성의 척도 중 장르에 기반한 실험(장르 실험), 복합장르, 탈장르를 '실험성 있음'으로 그 외를 기타를 '실험성 없음'으로 놓고 분류했을 때, 연속 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체 25개 중 15개가 실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60% 이상이 실험적인 활동으로 연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구대상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4년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두 단체의 경우 모두 '실험성 없음'으로 파악되었다.

□ 가치지향별 연속지원 현황

〈표 19〉 가치지향별 연속지원 현황

	2년	3년	4년	합계
종다양성	4	4	1	9
공공성	6	0	1	7
미학 중심	4	5	0	9
합계	14	9	2	25

– 3년 연속 지원단체의 경우 매체실험성은 가장 높은 반면 공공성이나 종다양성의 가치지향성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4) 지원금액

□ 전체

〈표 20〉 실다지 지원액 규모

구분	총 지원액(원)	선정 건수	건별 평균 지원액(원)
2009	750,000,000	60	12,500,000
2010	485,000,000	48	10,104,000
2011	500,000,000	38	13,158,000
2012	500,000,000	39	12,820,000
소계	2,235,000,000	185	12,081,081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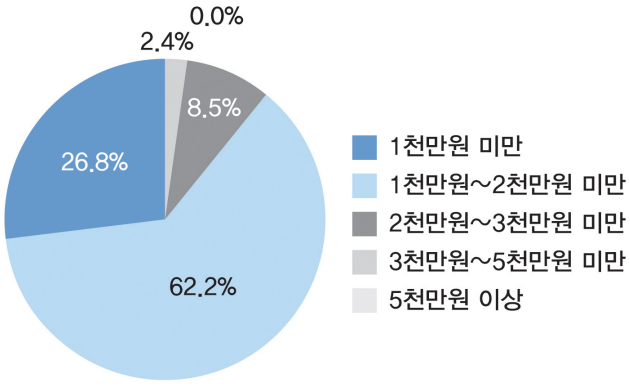
– 2009년부터 20112년까지 4년 간 실다지의 전체 지원액 규모의 추이를 보면, 2009년부터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2억6천5백만원으로 2009년 대비 65%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전체 선정건수도 12건(약 20%) 줄면서 건당 지원액 규모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 조사대상의 건당 지원금액을 1천만원 미만~1천만원, 1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 1억 이상으로 구간별로 구분하여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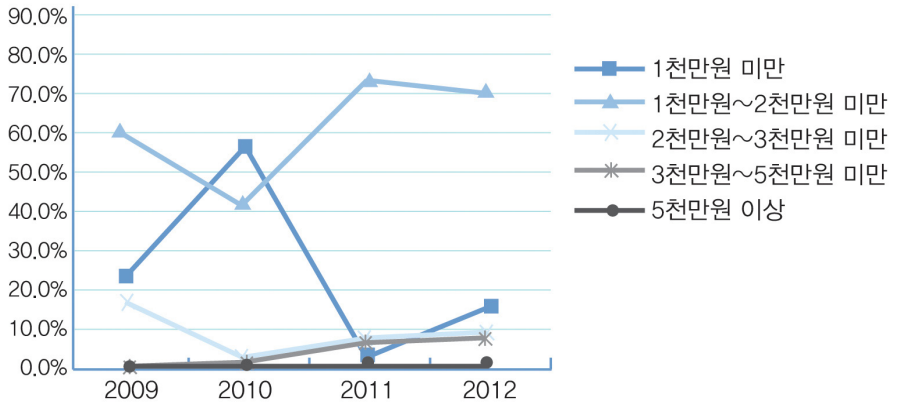
〈표 21〉 지원금액 구간별 건수

구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합계
2009	11 (24.4%)	27 (60.0%)	7 (15.6%)	0 (0.0%)	0 (0.0%)	45 (100%)
2010	26 (56.5%)	19 (41.3%)	1 (2.2%)	0 (0.0%)	0 (0.0%)	46 (100%)
2011	1 (2.8%)	30 (83.3%)	3 (8.3%)	2 (5.6%)	0 (0.0%)	36 (100%)
2012	6 (16.2%)	26 (70.3%)	3 (8.1%)	2 (5.4%)	0 (0.0%)	37 (100%)
소계	44 (26.8%)	102 (62.2%)	14 (8.5%)	4 (2.4%)	0 (0.0%)	164 (100%)

〈그림 11〉 건당 평균 지원금액 분포(4년 평균금액)



〈그림 12〉 건당 평균 지원금액 구간별 변화 추이



– 실다지의 지원대상 중 60% 이상의 지원금 규모가 1천만원~2천만원 사이이며, 특히 2011년 이후 그 비율이 대폭으로 높아졌다. 그에 반해 1천만원 미만의 소액지원은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절반 이상으로 줄었으며, 2천만원~3천만원 구간 역시 지원건수가 줄어들어, 실다지의 기본적인 지원금액이 1천만원~2천만원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눈여겨 볼 점은 2011년과 2012년,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적은 건수이긴 하나 3천만원~5천만원 사이의 지원액을 받는 대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두 건은 모두 활동유형이 '축제'에 해당한다.

〈표 22〉 2012년 장르별 건당 평균 지원금액[5)]

	다원(실다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전체 지원액 규모(원)	500,000,000	340,000,000	130,000,000	190,000,000	155,000,000
지원 건수(건)	39	8	2	6	8
건당 지원금액(원)	12,820,000	42,500,000	65,000,000	31,667,000	19,375,000

5) 이 표의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에 대한 수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2년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후지원)의 1차 공모사업에 대한 수치이다.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실다지의 건당 평균 지원금액과 타 장르의 평균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데, 실다지의 건당 평균 지원금은 연극의 30.2%, 무용의 19.7%, 음악의 40.5%, 전통예술의 66.2%에 해당한다.

□ 연령별 지원금액

〈표 23〉 연령별 건당 평균 지원금액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전체 대상	12,500,000	10,104,000	13,158,000	12,820,000	12,081,081
만 35세 이하	12,384,000	10,545,454	10,375,000	10,500,000	10,951,114
만 36세 이상	13,625,000	9,914,286	14,178,571	13,387,096	12,776,238

– 지원대상자의 연령별 건당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만 36세 이상의 지원금이 만 35세 이하의 지원금의 116.7%에 이른다.

□ 활동유형별 지원금액

〈표 24〉 활동유형별 건당 평균 지원금액

구분	단일작품	집합적기획	축제	워크숍	매체/연구	교육
2012	8,000,000	10,500,000	21,875,000	10,500,000	8,000,000	0
2011	10,818,182	11,250,000	28,000,000	0	12,000,000	0
2010	9,857,143	9,428,571	16,142,857	11,500,000	6,142,857	7,000,000
2009	10,285,714	13,300,000	19,333,333	15,000,000	10,800,000	9,666,667
평균	9,704,918	11,440,000	20,923,077	13,000,000	8,357,143	8,600,000

– 단일작품 발표와 매체발간과 연구, 교육의 지원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며, 집합적 기획, 워크숍, 축제의 순으로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워크숍이 축제 다음으로 높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참고] 다원예술 관련 기타사업 현황(2009-2013)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이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중 다원예술을 지원해온 사업 현황을 간략히 정리한다.

(단위 : 원)

○ 2009년

지원사업명	지원건수	전체 지원금액	건당 평균지원금액
예술전용공간 지원 (다원예술 전용공간)	3	150,000,000	50,000,000

※ 영아트프론티어 중 예술일반 5인 선정(개인당 13,000,000원)

○ 2010년

지원사업명	지원건수	전체 지원금액	건당 평균지원금액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 (매개공간 지원)	3	50,000,000	16,667,000

○ 2011년

지원사업명	지원건수	전체 지원금액	건당 평균지원금액
매개공간 지원	7	210,000,000	30,000,000
공연예술행사 지원	2	110,000,000	55,000,000
예술정간물발간및 조사연구활동지원	3	27,000,000	9,000,000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지원	6	75,000,000	12,500,000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2012년

지원사업명	지원건수	전체 지원금액	건당 평균지원금액
매개공간 지원	6	181,000,000	30,166,666
공연예술행사 지원	2	110,000,000	55,000,000
예술정간물발간및 조사연구활동지원	3	34,000,000	11,333,000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지원	5	63,000,000	12,600,000
해외예술인초청기획 프로그램지원	2	45,000,000	22,500,000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3	12,000,000	4,000,000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3	24,000,000	8,000,000

○ 2013년

※ 2013년 3월말 현재, 공모심사 결과 발표분까지

지원사업명	지원건수	전체 지원금액	건당 평균지원금액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3	282,000,000	94,000,000
공연예술행사 지원	2	110,000,000	55,000,000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1차)	1	60,000,000	60,000,000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공연예술)	* 신청접수 : '13. 3.6~4.2 / 추후 심사 예정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3. 지원 대상 활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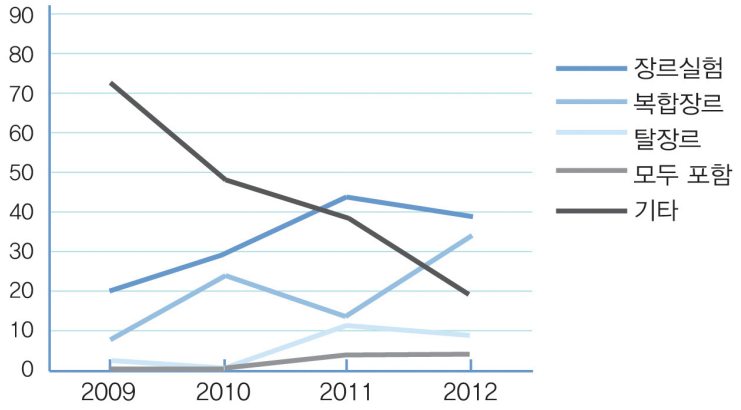
1) 매체실험성

□ 전체 경향

[표 25] 매체실험성 전체 현황(%)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	모두포함	기타	합계
2009	20	5	2	0	73	100
2010	30	22	0	0	48	100
2011	44	14	11	3	28	100
2012	38	35	6	3	18	100
4년 평균	33	19	5	2	42	100

[그림 13] 매체실험성 변화 추이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대상의 매체실험성에 대한 추이를 보면, 매체실험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44%로 가장 많고, 장르실험 32%, 복합장르 18%, 탈장르 5%,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1%의 순이다. 따라서,

최근 실다지의 지원 대부분 기성장르에 기반한 장르실험과 복합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르실험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2012년에 감소한 반면, 복합장르는 2009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다 2011년에 잠시 주춤했으나 2012년에 다시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 위의 그래프를 보면, 최근 들어 매체실험성이 없는 프로젝트 지원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매체실험성이 없어도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비율이 73%였지만, 꾸준히 감소해 2012년에는 19%에 불과하다. 이는 다원예술 지원제도에서 매체실험 경향성에 대한 심의비중을 높였거나, 현장에서 매체실험성을 우선한 다원예술 창작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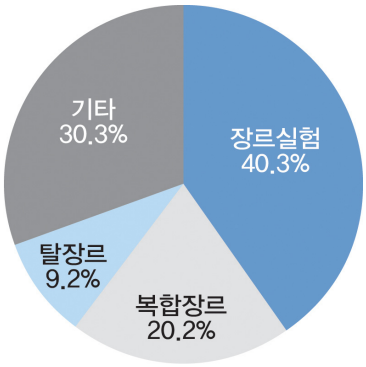
- 2011년부터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 속성을 모두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체 조사대상 중 3%라는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해볼 만하다.

□ 연령별 매체실험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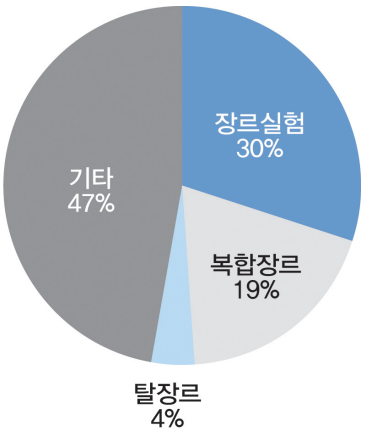
[표 26] 연령별 매체실험성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 평균
만 35세 이하	장르실험	30.8	63.6	50	16.7	40.3
	복합장르	0	18.2	12.5	50	20.2
	탈장르	7.7	0	12.5	16.7	9.2
	기타	61.5	18.2	25	16.6	30.3
	합계	100	100	100	100	100
만 36세 이상	장르실험	15.6	20	46.4	41.9	30.2
	복합장르	6.3	22.9	14.3	32.3	19.1
	탈장르	0	0	10.7	6.5	4
	기타	78.1	57.1	28.6	19.3	46.7
	합계	100	100	100	100	100

[그림 14] 만 35세 이하 예술가 매체실험성 분포



[그림 15] 만 36세 이상 예술가 매체실험성 분포



– 위의 표에서 기타는 매체실험성이 없는 지원사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 35세 이하 예술가, 즉 신진예술가의 매체실험성이 만 36세 이상 예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 평균값을 비교해봤을 때, 신진예술가는 69.7%, 36세 이상 예술가는 53.3%으로 차이를 보인다.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신진예술가는 최근연도로 올수록 장르실험이 감소하고, 복합장르와 탈장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의 장르실험은 30.8%였으나, 2012년에는 16.7%로 줄어들었고, 복합장르는 2009년의 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는 지원사례의 50%가 복합장르에 해당했다. 탈장르는 2009년, 7.7%에서 2012년 16.7%로 소폭 증가했다.

– 신진예술가의 경우와 비교할 때, 36세 이상 예술가는 장르실험 비율이 높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5.6%에서 46.4%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2년에는 41.9%를 차지했다. 복합장르는 꾸준히 소폭 상승하고 있고, 탈장르는 2011년부터 지원받기 시작했으나, 2012년에는 장르실험과 탈장르에 비해 적은 비중인 6.5%를 보였다.

□ 지역별 매체실험성 현황

[표 27] 지역별 매체실험성 현황

※ I–매체실험성 없음, II–매체실험성 있음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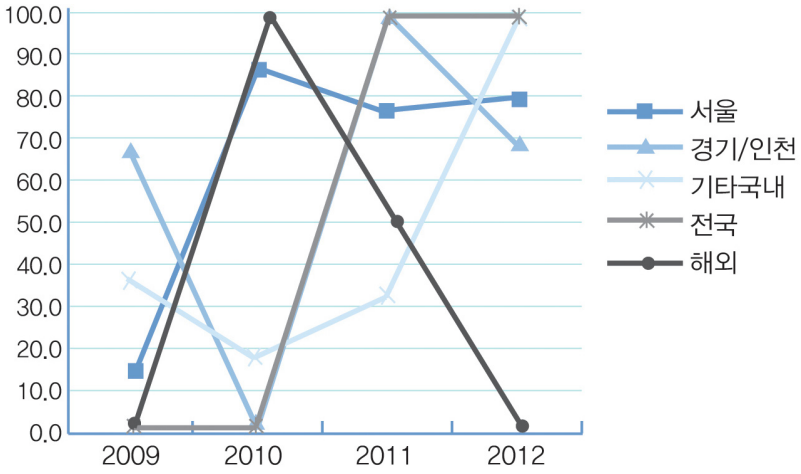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I	II	I	II	I	II	I	II	I	II
서울	21	4	13	22	7	21	6	23	47	70
경기/인천	1	2	3	0	0	2	1	2	5	6
기타국내	5	3	4	1	2	1	0	4	11	9
전국	6	0	2	0	0	1	0	1	8	2
해외	3	0	0	1	1	1	0	0	4	2
전체	45		46		36		37		164	

[표 28] 지역별 매체실험성 변화 추이

※ [표 27]의 '매체실험성 있음'의 백분율

	서울	경기/인천	기타국내	전국	해외
2009	16.0	66.7	37.5	0.0	0.0
2010	88.0	0.0	20.0	0.0	100.0
2011	75.0	100.0	33.3	100.0	50.0
2012	79.3	66.7	100.0	100.0	0.0

[그림 16] 지역별 매체실험성 변화 추이



– 서울과 경기, 수도권이 매체실험성 있음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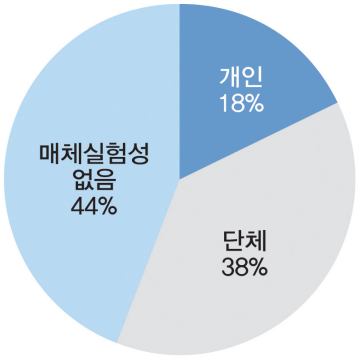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개인/단체별 매체실험성 현황

[표 29] 개인/단체별 매체실험성 현황(%)

	2009	2010	2011	2012	4년 평균
개인	7	17	25	24	18
단체	20	35	47	57	38
매체실험성 없음	73	48	28	19	44

[그림 17] 개인/단체별 매체실험성 비율(4년 평균)



– 지원대상자 중 개인보다 단체가 매체실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년 평균값을 비교하면, 개인은 18%, 단체는 3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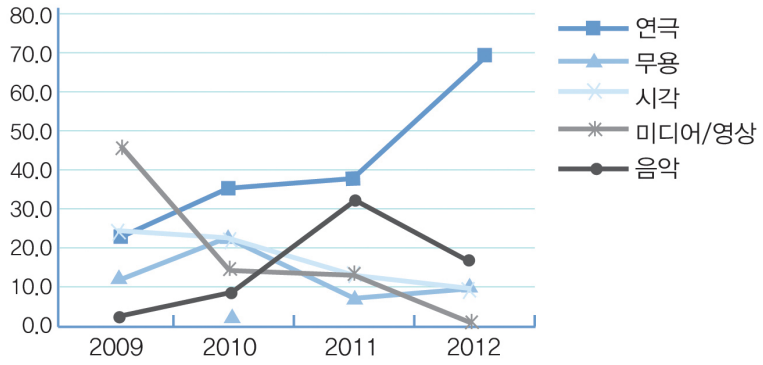
□ 기반 장르

– '매체실험성 있음'의 척도 중 기반 장르 도출이 가능한 '장르실험', '복합장르'의 기반장르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30] 장르실험의 기반장르 비율(%)

기반장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 평균
연극	22.5	35.9	37.2	69.2	41.2
무용	11.0	21.4	6.3	7.7	11.6
시각	22.0	21.4	12.6	7.7	15.9
미디어/영상	44.5	14.1	12.6	0.0	17.8
음악	0.0	7.2	31.3	15.4	13.5
합계	100	100	100	100	100

[그림 18] 장르실험의 기반장르 변화 추이(%)



- 실다지 지원대상 중 매체실험성이 있는 대상의 기반장르를 분석한 결과, 연극이 4년 평균 41.2%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영상 17.8%, 시각예술 15.9%, 음악 13.5%, 무용 11.6%의 순서로 비중이 낮아지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 장르실험에서 연극은 기반장르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음악은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에 31.3%에서 15.4%로 하락했다. 2009년에는 미디어/영상이 연극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4년 사이에 감소하여 2012년에는 유효건수가 없다. 시각예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무용은 10%와 2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31] 복합장르의 기반장르 비율[6](%)

기반장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 평균
연극	4.4	10.9	2.8	10.8	7.2
무용	4.4	8.7	5.6	18.9	9.4
시각	4.4	17.4	5.6	16.2	10.9
미디어/영상	0.0	8.7	2.8	13.5	6.2
음악	0.0	4.3	11.1	16.2	7.9
문학	2.2	6.5	2.8	2.7	3.6

- 4년간의 실다지 지원 대상 중 복합장르적 프로젝트의 기반장르를 분석한 결과, 시각예술과 무용 장르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장르에서 시각예술과 무용이 참여한 프로젝트 비율이 각각 10.9%, 9.4%를 차지한다.

- 복합장르에서 2011년부터 음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극과 무용은 복합장르에서 기여도를 비교할 때, 평균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문학의 기여도는 미미하며, 최근 연도로 올수록 감소 추세에 있다.

2) 가치지향성

□ 앞서 연구진은 매체실험성-가치지향성의 분석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가치지향성을 구성하는 척도로 사회참여, 공공성, 종다양성, 미학중심을 제시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실다지 사업의 전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 개념을 충족하는 유효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광의적 개념의 '공공성'으로 포함시키고, 통계 결과를 분석하였다.

6) 여러 장르가 융합하는 복합장르의 속성상, 기반장르는 중복으로 계수했다. 따라서, 위 비율 합계는 개별연도 및 4년 합계 실다지 사업 전체의 비율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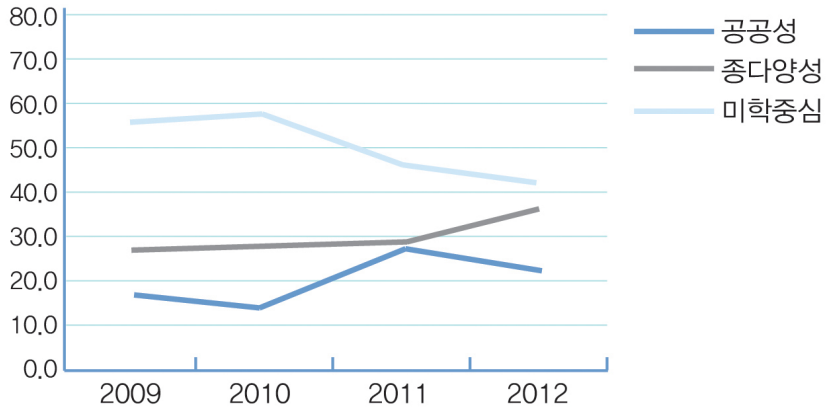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가치지향성 전체 현황

[표 32] 가치지향성 전체 현황(%)

	공공성	종다양성	미학중심	합계
2009	16	27	57	100
2010	14	28	58	100
2011	26	28	46	100
2012	22	36	42	100
4년 평균	24	32	44	100

[그림 19] 가치지향성 변화 추이



- 최근 4년간 실다지 지원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지 않고, 예술의 표현양식의 실험과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평균 4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종다양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공공성의 비중이 24%로 가장 낮다.
- 종다양성을 포함한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성에 기반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11년에 소폭 증가했다가 2012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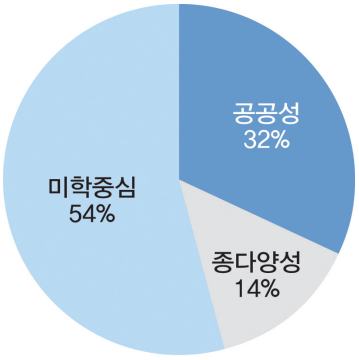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연령별 가치지향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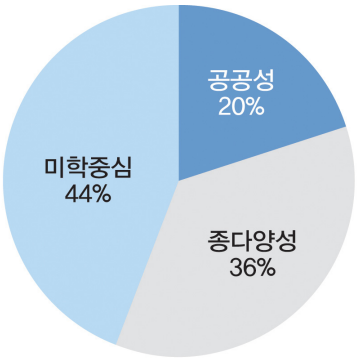
[표 33] 연령별 가치지향성 현황(%)

		2009	2010	2011	2012	4년 평균
만 35세 이하	공공성	23.1	18.2	37.5	50	32.2
	종다양성	46.2	9.1	0	0	13.8
	미학중심	30.7	72.7	62.5	50	54.0
	합계	100	100	100	100	100
만 36세 이상	공공성	40.6	22.9	7.1	9.7	20.0
	종다양성	40.6	39	35.7	29	36.1
	미학중심	18.8	38.1	57.2	61.3	43.9
	합계	100	100	100	100	100

[그림 20] 만 35세 이하 지원대상의 가치지향성 분포(4년 평균)



[그림 21] 만 36세 이상 지원대상의 가치지향성 분포(4년 평균)



– 지원대상자 중 만 35세 이하 대상자와 만 36세 이상 예술가를 비교했을 때, 전자, 즉 신진예술가가 가치지향성 중 미학을 중시하는 비율이 4년 평균 53%로 만 36세 이상 예술가의 43%보다 높은 편이다.

– 신진예술가의 가치지향성에서는 종다양성을 지향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만 36세 이상 예술가에서는 종다양성이 3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신진예술가가 종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비율이 2010년에 크게 감소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유효 건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만 36세 이상 예술가에서도 종다양성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5.7%와 29%를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양 연령대 모두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 평균값을 비교하면, 각각 29%와 22%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신진예술가는 최근연도로 올수록 공공성을 지향하는 비중이 2009년의 23.1%에서 2012년의 50%로 높아지는 반면, 만 36세 이상 예술가는 2009년의 40.6%에서 2012년의 9.7%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두 연령대가 대조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지역별 가치지향적 프로젝트 수행경향성

[표 34] 지역별 가치지향성 현황

※ I – 미학 중심, II – 공공성/종다양성,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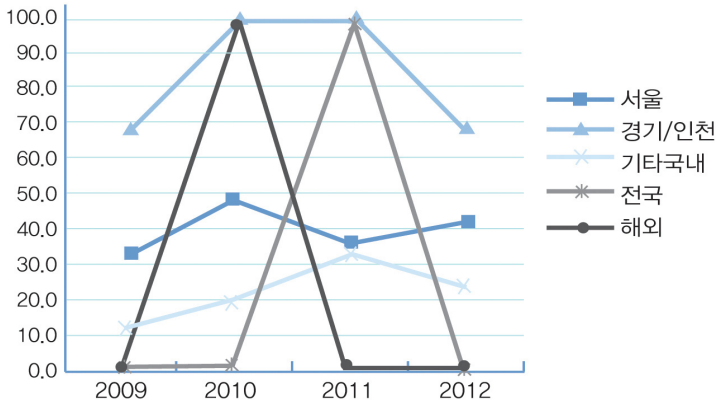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I	II	I	II	I	II	I	II	I	II
서울	10	15	18	17	18	10	17	12	63	54
경기/인천	1	2	0	3	0	2	1	2	2	9
기타국내	7	1	4	1	2	1	3	1	16	4
전국	6	0	2	0	0	1	1	0	9	1
해외	3	0	0	1	2	0	0	0	5	1
전체	45		46		36		37		164	

[표 35] 지역별 가치지향성 현황(%)

※ [표 34]의 공공성/종다양성의 비율

	서울	경기/인천	기타국내	전국	해외
2009	33.3	66.7	12.5	0.0	0.0
2010	48.6	100.0	20.0	0.0	100.0
2011	35.7	100.0	33.3	100.0	0.0
2012	41.4	66.7	25.0	0.0	0.0

[그림 22] 지역별 가치지향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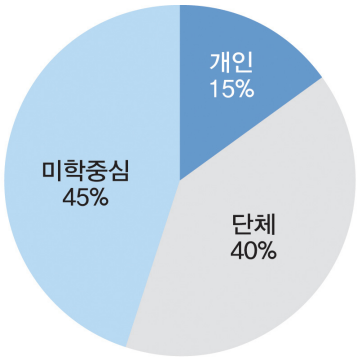
– 공공성과 종다양성에 근거한 가치지향적 사업은 지원사업의 1/3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 개인/단체별 가치지향성

[표 36] 개인/단체별 공공성/종다양성 지향 현황(%)

		2012	2011	2010	2009	4년 평균
공공성 종다양성	개인	5	3	17	31	15
	단체	36	39	37	47	40
미학 중심		59	58	46	22	45
합계		100	100	100	100	100

[그림 23] 개인/단체별 공공성/종다양성 지향 비율



– 미학 중심 프로젝트를 외의 공공성, 종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비율은 개인보다 단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2009년부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공공성/종다양성을 지향하는 개인은 31%에서 5%로 꾸준히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단체의 경우 평균 40%에서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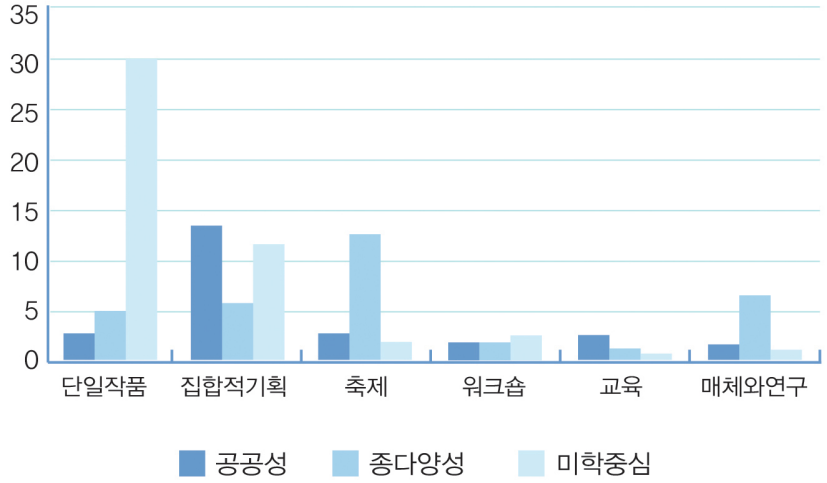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활동유형별 가치지향성

[표 37] 활동유형별 가치지향성 현황(%)

연도	가치지향성 구분	단일작품	집합적기획	축제	워크숍	교육	매체와연구
2009	공공성	4.4	22.2	2.2	2.2	4.4	0
	종다양성	4.4	8.9	11.2	4.4	2.3	11.1
	미학중심	6.7	13.3	0	2.3	0	0
	소계(100)	15.5	44.4	13.4	8.9	6.7	11.1
2010	공공성	0	8.7	6.5	0	4.4	4.3
	종다양성	4.3	4.3	8.7	0	0	10.9
	미학중심	26.1	17.4	0	4.4	0	0
	소계(100)	30.4	30.4	15.2	4.4	4.4	15.2
2011	공공성	0	13.9	0	0	0	0
	종다양성	8.3	5.6	11.1	0	0	2.8
	미학중심	52.8	2.8	2.8	0	0	0
	소계(100)	61.1	22.2	13.9	0	0	2.8
2012	공공성	5.4	8.1	0	2.7	0	0
	종다양성	2.7	2.7	18.9	0	0	0
	미학중심	40.5	10.8	2.7	2.7	0	2.8
	소계(100)	48.6	21.6	21.6	5.4	0	2.8
합계	공공성	2.4	13.4	2.4	1.2	2.4	1.2
	종다양성	4.9	5.5	12.2	1.2	0.6	6.7
	미학중심	29.9	11.6	1.2	2.4	0	0.6
	총계(100)	37.2	30.5	15.9	4.9	3	8.5

[그림 24] 활동유형별 가치지향성 비율(4년 평균)



– 실다지 지원사업의 활동유형별 가치지향성을 살펴보면, 단일작품 발표를 하는 지원대상자에서 미학 중심적 가치를 지향하는 비율이 높다. 집합적 기획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지향성이 높으며, 축제는 종다양성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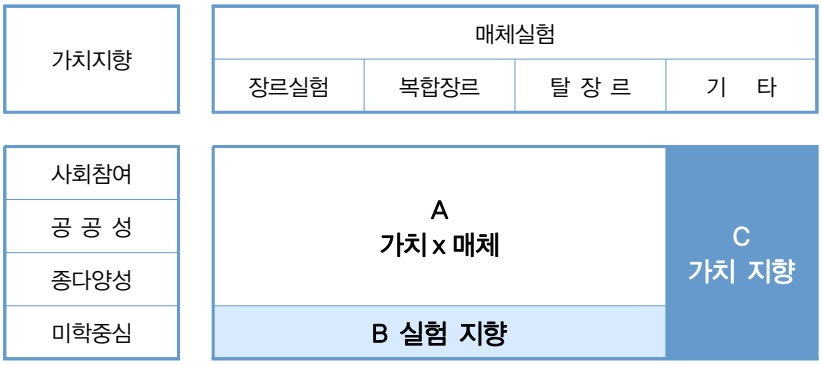
3) 매체실험성과 가치지향성의 상관관계

– 제2장 1절에서 제시한 매체실험성과 가치지향성을 기준으로 한 분석 매트릭스를 이용해 최근 4년간의 실다지 사업 대상의 활동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 분석 매트릭스에서 매체실험성의 네 가지 척도와 가치지향성의 네 가지 척도가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16개의 유형을 다시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A영역은 실다지 지원을 받은 사업 중 매체실험성(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과 가치지향성(사회참여, 공공성, 종다양성)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영역이다. B영역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지 않으며,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 표현양식의 실험과 확장을 사업의 우선가치로 삼는 프로젝트들이 속하는 영역이다.

C영역은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학적 가치보다는 공공성, 종다양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프로젝트들이 속하는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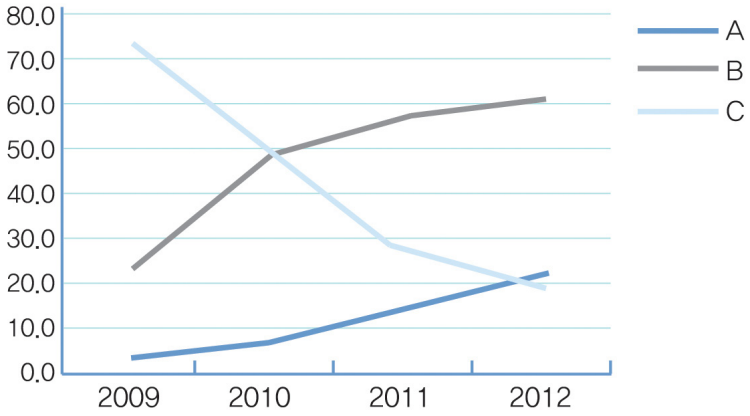
[그림 25]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의 영역 구분



[표 38]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의 영역별 분포

	A영역 가치 x 매체	B영역 실험 지향	C영역 가치 지향	합계
2009	4.4	22.2	73.4	100
2010	6.5	45.7	47.8	100
2011	14.0	58.3	27.7	100
2012	24.3	56.8	18.9	100
평균	12.3	45.7	42.0	100

[그림 26]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의 영역별 비율 추이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다지 지원사업의 가치지향성과 매체실험성 분포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B영역, 즉 매체실험을 중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22.2%에서 56.8%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영역, 즉 (공공성/종다양성) 가치지향 프로젝트의 비율은 4년 평균 42.0%로 매체실험성 중심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율 45.7%와 비교할 때 비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42.0%라는 숫자는 2009년 가치지향성 프로젝트에 비율이 73.4%로 매우 높았던 데에 큰 이유가 있으며, 가치지향 비율은 2010년의 47.8%, 2011년의 27.7%, 2012년의 18.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A영역, 즉 가치지향성과 매체실험성을 모두 중시하는 지원대상의 비율은 4년 평균 12.3%이다. 이 영역도 매체실험성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 4.4%, 2010년 6.5%, 2011년 14.0%, 2012년 24.3%로 매체실험성과 가치지향성을 모두 수용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최근 4년 동안 실다지 지원대상 중 (공공성/종다양성) 가치지향의 프로젝트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매체실험 중심의 프로젝트와 가치지향성과 매체지향성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가치지향 프로젝트의 감소분을 대체하며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표 39] 가치지향성-매체실험성 척도별 비율 추이(%)

		← 매체실험성 →					
	↓가치지향성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	모두포함	기타	합계
2009년	공공성	0	0	0	0	35.6	35.6
	종다양성	2.2	2.2	0	0	37.8	42.2
	미학중심	17.8	2.2	2.2	0	0	22.2
	소계	20	4.4	2.2	0	73.4	100
2010년	공공성	0	0	0	0	26.1	26.1
	종다양성	4.3	2.2	0	0	21.7	28.2
	미학중심	26.1	19.6	0	0	0	45.7
	소계	30.4	21.8	0	0	47.8	100
2011년	공공성	2.8	2.8	0	0	8.3	13.9
	종다양성	2.8	2.8	0	2.8	19.4	27.8
	미학중심	38.9	8.3	11.1	0	0	58.3
	소계	44.5	13.9	11.1	2.8	27.7	100
2012년	공공성	0	5.4	2.7	0	8.1	16.2
	종다양성	2.7	10.8	0	2.7	10.8	27
	미학중심	32.4	18.9	5.5	0	0	56.8
	소계	35.1	35.1	8.2	2.7	18.9	100
평균	공공성	0.7	2.1	0.7	0.0	19.5	23.0
	종다양성	3.0	4.5	0.0	1.4	22.4	31.3
	미학중심	28.8	12.3	4.7	0.0	0.0	45.8
	소계	32.5	18.8	5.4	1.4	42.0	100

제2장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의 현황

- 4년간 실다지 지원대상자의 가치지향성과 매체실험성 척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A 영역, 즉 가치지향성과 매체실험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영역 중 복합장르는 2009년 2.2%에서 2012년 16.2%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장르실험은 증감에 있어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2009년 2.2%, 2010년 4.3%, 2011년 5.6%, 2012년 2.7%–. 탈장르 및 매체실험의 세 가지 척도를 모두 포함하는 지원대상자는 201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전체 실다지 사업의 3%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르실험 및 복합장르이면서 공공성을 지향하는 지원대상도 201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4년 평균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매체실험과 함께 종다양성 가치를 지향하는 지원대상자는 꾸준히 있어왔으며, 2009년 2.2%에서 2012년 10.8%로 증가했다.

- 매체실험 중심인 B영역에서는 장르실험이 가장 비율이 높고, 복합장르와 탈장르의 순서로 비중이 낮아진다. 장르실험의 비율은 2009년 17.8%에서 28.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장르와 탈장르에 대한 일관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 가치지향성을 중시하는 C영역에서는 종다양성이 공공성보다 비중이 높다. 하지만, 공공성, 종다양성 모두 최근 연도로 올수록 각각 27%, 27.5%로 비슷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제3장

결 론

1. 최근 4년 간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특징
2.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제언
3. 후속 연구 제안

제3장 결론

1. 최근 4년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특징

1) 지원자 연령 : 신진예술가 지원 감소

□ 4년간의 지원대상자의 연령 통계를 보면, 전체 지원대상자 중 만 35세 이하 신진예술가의 비중은 2009년부터 매해 줄어들어 2009년 35.6%에서 2012년에 27%까지 줄어들었으며, 4년 평균 전체 지원자의 31.7%만이 신진예술가에 해당한다.

□ 이는 2008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가 "일반 문화예술인의 경우 21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창작자 비중이 36.7%에 불과한 반면, 다원예술 창작자의 경우, 동일한 연령대의 창작자 비중이 61.8%를 차지한다.[7]"고 밝힌 대목과는 대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4년간 실다지의 지원을 받은 신진예술가들의 활동형태는 단일작품/집합적 기획에 집중되어 있으며 만 36세 이상의 예술가에 비해 매체실험적 작업비율이 높고, 가치면에서도 미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

2) 활동지역 : 수도권 집중

□ 실다지 지원대상자의 활동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2009년의 경우 60%였던 비율이 2012년에는 80%까지 증가하면서 집중도가 더욱 강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2008년의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에서도 역시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하는 다원예술 분야 창작자의 비율이 높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이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을 포함한 '다원예술매개공간

7) p.26와 p.27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에 실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8년에 실시한 다원예술 창작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운영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성과가 크다고는 볼 수 없겠다. 단, 2010년 이후 각 지역문화재단들이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연구결과만으로 지역의 다원예술 활동이 주춤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활동형태 : 단일작품 발표, 축제의 증가

□ 4년간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단일작품 발표 활동이 2009년 약 40%에서 2012년 50% 이상으로 늘었으며, 2009년 당시 집합적 기획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2010년부터 집합적 기획과 단일작품이 비율이 역전되었다.

□ 활동형태의 변화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지원사업 내 다원예술 분야 사업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공연예술행사지원'에 다원예술 분야가 생기고, 실다지 내에서도 축제 지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미루어보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다원예술 활동 중에는 축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매체발간과 연구 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관련 정간물발간 지원사업에 다원분야가 생기면서 실다지 내의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4) 지원금액 : 소액지원 건수 감소, 타 장르와의 격차 여전

□ 실다지의 건당 평균 지원금액 자체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으나, 1천만원 미만의 소액지원 비율이 2009년 24.4%에서 2012년 16.2%까지 줄어들었으며, 2011년 이후 3천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건수도 소수나마 발생하기 시작했다.

□ 하지만, 타 장르와 비교하면, 지원금액의 격차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2012년 건당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연극, 무용, 음악 장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결론

5) 지향성 : 매체실험성의 증가, 가치지향의 감소 추세

□ 다원예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체실험성과 가치지향을 축으로 4년간의 지원대상을 분석해보면, 매체실험성(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이 2009년 22.2%에서 2012년에는 56.8%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실험성 내에서도 복합장르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눈여겨 볼 만 하다. 이와 반비례하여 미학 중심 가치지향을 제외한 가치지향성(공공성, 종다양성)의 비중은 2009년 73.4%에서 2012년에는 18.9%까지 감소했다. 가치지향성과 매체실험성을 모두 보이는 지원대상도 2009년 4.4%에서 2012년 24.3%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9년까지 사업명을 '다원예술 지원'으로 사용했으나, 개념의 모호성 등을 극복하고자 2010년부터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적용하면서 실험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축을 병렬하였지만, 실제 심의/지원의 기준이 점진적으로 실험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매체실험성에 대한 경향성은 2년 이상 연속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60% 이상이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 등 실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기반장르 : 미디어 실험의 감소, 공연 기반 실험의 증가

□ 최근 4년간 실다지 지원사업에서 장르실험과 복합장르 경향을 가진 사업들의 기반장르를 분석한 결과, 2009년에는 시각예술, 미디어/영상 기반의 장르실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0년 이후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연극, 무용 등의 공연예술 장르를 활용한 실험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르실험에서는 연극과 음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복합장르에서는 무용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음악의 경우 2009년 당시 실험적 작업에 활용되는 거의 없었으나, 그 이후를 보면 장르실험과 복합장르 양쪽에서 활용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제3장 결론

2. 향후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을 위한 제언

1) 다원예술의 현재적 개념 도출 및 지원사업에의 반영

□ 지난 4년간의 지원사업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다지 사업에서 가치적인 다양성보다 매체실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지원사업 목표와 심의과정 상에서 그 변화를 명확하게 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바라보는 다원예술에 대한 현재적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다원예술' 개념이 수용해온 예술의 사회참여, 공공성, 종다양성 등 미학 중심 이외의 가치지향적 작업들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외부의 어떤 지원제도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신진예술가 지원방안 고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6년에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정책과제 중 일부를 신진예술가 지원으로 설정하였고, 다원예술 현장에서 신진예술가의 현장수요를 2008년의 연구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의 실다지에서 매체실험성의 수행경향이 높은 신진예술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이 기성예술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타 지원사업(차세대집중육성지원)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실제 신진예술가 지원의 비중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분석에 근거한 신진예술가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지원금액의 현실감과 균형감 확보

□ 다원예술 분야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다원예술 작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다지'사업에 지원했다

는 이유만으로 평균 지원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다. 현재의 다른 장르 지원금과의 큰 금액차이가 실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친 지원액의 재설계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4) 활동유형별 지원방식 다각화

□ 현재 실다지에서 수용하고 있는 다원예술 다양한 활동유형 중, 예를 들어 축제나 매체발간 및 연구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존재하는 여타 지원사업으로 수용하고, 실다지 사업은 실제 기획과 창작과정, 창작작품의 발표 등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실다지는 다른 장르의 창작지원사업과 같은 수위의 사업으로서 창작기반 조성 및 발표 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축제, 매체발간의 경우도 다른 장르기반의 지원대상자와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리라 생각한다.

□ 또한,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중시하는 다원예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집합적 기획, 워크숍, 교육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다지의 다양한 활동유형, 나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예술활동에 대한 폭넓은 파악과 각 활동유형에 걸맞는 다각적, 다층적인 지원방식, 예를 들어 지원기간의 다변화, 지원금 외의 간접지원 확대 등 다원예술의 창작 특성을 감안한 지원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5) 지역 다원예술 육성을 위한 방안 고려

□ 한국의 다원예술 지원체계에 있어 전국과 지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기초/광역 지역문화재단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실다지 활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의 다원예술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결론

3. 후속 연구 제안

□ 연구보고서의 서두에서 밝힌 바 있듯이,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다원예술 지형을 확인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원예술 분야는 최신의 현황 파악과 그에 기반한 기민한 정책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이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1) 한국 다원예술 지원 제도 개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다지 사업 외의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 현황 총화
□ 각급 지역문화재단 내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 현황 총화
□ 민간문화재단의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 현황 총화

2) 한국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 각 지원제도 신청자에 기반한 다원예술 창작자 현황 파악
□ 다원예술 관련 공간, 축제 등의 프로그램 및 사업 구조 총화
□ 단일작품, 집합적 기획 등 발표/공개되는 활동을 통한 창작 현황 파악
□ 창작자, 관련 공간/기관/축제 등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관리/업데이트

3) 다원예술 지원제도 다각화를 위한 연구

□ 창작자, 기획자(공간/축제), 행정가 수요조사
□ 해외 공공/민간 지원프로그램 사례조사
□ 다원예술의 다양한 제작/창작/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사례조사
□ 간접지원제도 확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첨부자료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 목록(2009-2012)
2. 릴레이 간담회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말하다' 주요 논의 내용
3. 오픈포럼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2012' 주요 토론 내용

첨부자료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 목록 (2009-2012)

1)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 2009년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사)문화사회연구소	문화 and 예술 워크샵 개최 21세기 도시와 예술의 만남	7,000,000
(사)민족건축인협의회	나도 우리마을 건축가	7,000,000
(사)사람과마을	골목길에서 만난 사람들- 성미산 주민 동아리	16,000,000
(사)성서공동체FM	예술 공공과 만나다. ver02성서야 문화로 놀자	15,000,000
(사)우리만화연대	월간 우리만화 지 발간 사업	20,000,000
(사)춘천마임축제	무빙 스페이트 프로젝트 09	22,000,000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엄마나라이야기2	25,000,000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청주지부	청주시 수동 공공예술 프로젝트 수암골 아트 투어	9,000,000
(주)공간사	장소의 기록, 기억의 재현 통권 500호 기념전시 및 문화행사	15,000,000
Art Laboratory 39	옥상미술관프로젝트_도시는 우리의 것이다	12,000,000
TerrorJ	2009 제주 머리에 꽃을 거리예술제	25,000,000
artblender파랑캡슐	초대 VER.3- 퍼즐PUZZLE	14,000,000
가슴네트워크	가슴네트워크 10주년 축제 한국대중음악의 과저, 현재, 미래	17,000,000
강은수	신음프로젝트 소리를 통한 신체의 확장	10,000,000
광주독립음악발전연대 네버마인드	제6회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	16,000,000
국악놀이연구소	후여 딱딱 새야 창작전래 국악동요음반 제작 보급	8,000,000
극단민들레	달려라 자전거, 온누리 신명나게! - 까만닭, 얼룩소	10,000,000
극장씨어터제로	제2회 한일 ART릴레이	20,000,000
기술미학연구회	기술미학포럼	7,000,000
김경자	대인시장과 예술작업의 일상적 만남	5,000,000
김은진	봄로야 인터랙티브 전시 및 공연	9,000,000
김주환	QuARTerS project 2009 - ARC+HIVE	16,000,000
김지혜	내일의 마을 상상 커뮤니티 페스티벌	7,000,000
김향진	공간의 기록4 space creature-space mind	10,000,000

첨부자료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김현	2009 부산 인디락 페스티벌	7,000,000
노동만화네트워크들꽃	만화 도시에서 길찾기-도시 사람 공간 길을 찾아서	9,000,000
대산미술관	소외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11,000,000
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	아시아 뉴미디어 실크로드 2009	16,000,000
독립음악커뮤니티-루비살롱레코드	Project 보청기	7,000,000
물레아트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물레아트페스티벌 2009	21,000,000
바셀린프로젝트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16,000,000
백산문화예술위원회	2009 정신대해원상생위령제전	10,000,000
보일라	무료 문화잡지 보일라 발간	10,000,000
블라인드사운드	블라인드사운드 뉴미디어 아트 필름쇼 워크샵	18,000,000
사회적 기업(주) 노리단	소리 수선가게	10,000,000
서정민갑	Music Revolution 2009 Red Sire	11,000,000
서현석	Hell O	11,000,000
손현숙	이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콘서트 울타리 없는 노래	9,000,000
송일곤	쿠바의 한인 낭만적 유목민을 찾아서	15,000,000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	디자인 리서치 스쿨전	16,000,000
시흥문화운동공동체이공(異共)	2009청소년공공문화프로젝트 틈사이틈을 잇다	9,000,000
아트포럼일상의예술	2009 예술자전거 지구방위대 거리퍼포먼스	11,000,000
앨리스온(AliceOn)	디지털 문화 예술 전문 방송 앨리스 온 TV	10,000,000
언더그라운드아트채널	신진작가 지원 릴레이 쇼 지원프로젝트	18,000,000
연극집단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 300명 예술을 먹다	13,000,000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우리 안의 아시아-서울과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아시아 문화이해	13,000,000
유승덕	예술을 파는 가게	10,000,000
이병희	정기간행물 책 – ACT 발간 및 인터넷 웹진 www.a-art.net발간	7,000,000
이윤준	동물비 Raining animals	13,000,000
이은호	극장전 – 도시, 극장, 미술	11,000,000
일상예술창작센터프리마켓사무국	2009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20,000,000
임근준	상징형식으로서의 인터페이스 컨템퍼러리 미술의 의미 구조에 관한 연구	7,000,000
정찬일	삼류작가 무명가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드립니다.	7,000,000
조새미	조새미 개인전, critical theatre 비평적 극장	8,000,000
채은영	DIY 포럼	11,000,000
최승훈+박선민	Versus 2 Music vs Text	7,000,000

첨부자료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최태윤	도시프로그래밍101 출간 및 관련 행사	7,000,000
카바레사운드	인디문화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11,000,000
피지컬씨어터페스티발사무국	제4회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	21,000,000
후용공연예술센터	6회 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2009	17,000,000

– 2010년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사)문화도시연구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축교육프로그램 발간	7,000,000
(사)문화미래포럼	행복한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행복가족페스티벌	15,000,000
(사)사람과마을	아리아리 동동! 누구나,모두가 예술가 프로젝트 (주민자치 동아리/클럽 창작워크샵)	8,000,000
(사)한국한시협회	2010년 제10기 한시교실 운영 및 2개 과정 강좌	7,000,000
Creative VaQi	도시이동연극 '당신의 소파를 옮겨드립니다'	15,000,000
LVS PROJECT	한국 패션의 역사를 쓰다 전시	7,000,000
Lim–AMC	한국 현대작곡가 창작곡 음반 발매 및 연주회 개최	13,000,000
SORO 퍼포먼스 유닛	판아시아2010–제3회 아시아 퍼포먼스 아트 인 서울	10,000,000
강영화	詩, 線 그리고 人– 선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사람다움	8,000,000
강태희	공항 – 책속의 미술관 프로젝트	5,000,000
공동창작모둠 판 PAN	소리 이미지 극 Wildthing	7,000,000
권수임	비디오 댄스 상영 및 미디어 퍼포먼스 시간	5,000,000
극단거울	Live theater 이상한 앨리스	15,000,000
극단화살표	[Compact–Verbal] 햄릿Hamlet 서스펜스suspense공연	13,000,000
김윤태	소리그림놀이0 (Interactive SoundGraphics0)	8,000,000
김향진	공간의 기록(Space creature–Space mind)	8,000,000
닷라인TV	2010 ATU(Alternative, Translate, Universe)	15,000,000
동숭아트센터	전통과 예술의 만남–예술로 다시 태어난 상여꼭두	5,000,000
물레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물레아트페스티벌2010	18,000,000
박동희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아트 교육	7,000,000
비주얼씨어터컴퍼니꽃	페인팅 퍼포먼스 프로젝트 [두개의 벽]	13,000,000
사회적기업미디어교육연구소	생생 미디어꽃놀래 100인100선 – [1]	7,000,000
여성구	2010 매직플레이 'Shadow Art' 공연	8,000,000

첨부자료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일상예술창작센터	2010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18,000,000
코르코르디움	라 뮤지카	10,000,000
한국멀티미디어 음악학회	보는 소리, 듣는 영상 VII	10,000,000
한국실험예술정신 (KoPAS)	제9회 한국실험예술제 '예술도시 생성 프로젝트-Docking'	25,000,000
홍성미	[share water, share art]캠페인	8,000,000
홍순환	유목적 환원-전시	8,000,000
홍은지	인터렉티브 미디어 퍼포먼스 – "벙어리 시인"	5,000,000
보일라	무료 문화잡지 보일라 발간	5,000,000
(사)민예총대구지회	2010열린예술놀이터 '오만가지예술상상, 예술가텐트촌'	15,000,000
ACT편집위원회	ACT 책 발간	5,000,000
Et Aussi 무용단	아시안 즉흥 예술교류 2010	5,000,000
가슴네트워크	2010 가슴네트워크축제 "당대 뮤지션을 조명하는 어워드 형식의 음악축제"	15,000,000
그룹 스폰치	나누미 프로젝트	8,000,000
김종국	차학경 단행본 발간	8,000,000
노정하	인터렉티브가 흐르는 공간과 시간	15,000,000
성동훈	사막예술기행-I	5,000,000
창시	2010 마을이야기축제	15,000,000
할아텍	할아텍+트라이앵글프로젝트	13,000,000
홍성민	로마의 휴일	10,000,000
(사)춘천마임축제	2010무빙스페이스 프로젝트(Moving Space Project 2010)	15,000,000
유진규네몸짓	설치공연(Installation Performance) 유진규의 빨간방	8,000,000
이혁발	행위미술 이야기 발간	5,000,000
정미미	무용과 미디어아트의 복합 예술 공연(공연작품명:Hidden)	8,000,000

– 2011년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사)한국공연예술원	샤마니카 2011 공연	10,000,000
(사)한국재즈협회	재즈, 아트 오브제 – 그 황홀한 유혹	10,000,000
가슴네트워크	2011 가슴네트워크축제 "Rookie & Records"	25,000,000
경계없는예술센터	2011 비아페스티벌	20,000,000

첨부자료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김윤선	화가의 눈 – 음반 제작, 영상 제작	10,000,000
뉴미디어공연그룹다이노	심혼MovementinImagescopy공연	8,000,000
대안공간문화살롱공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 – 옛 것이 보물이다	10,000,000
더하우스콘서트 (TheHouseConcert)	2011 제4회 서울 프리뮤직 페스티벌	35,000,000
독립음악커뮤니티– 루비살롱레코드	Interactive Media Art CONCERT(가제)	10,000,000
동숭아트센터	저승 판타지 : 신화와 예술의 만남	15,000,000
똥자루무용단	무용공연을 말하다 “움직이는 프리젠테이션 쇼”	10,000,000
몸꼴	‘몸에 대한 사색’ 프로젝트 – 허기진 휴식	15,000,000
박승희	도시의 소리 – 광고의 재발견 프로젝트	10,000,000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보이스퍼포먼스 [독]	10,000,000
보일라	무료 문화잡지 보일라 발간	12,000,000
비주얼씨어터컴퍼니꽃	물체인형 퍼포먼스 [종이인간] (가제)	10,000,000
뿌리예술단	婚禮, 그리고 wedding – 만남과 새로운 시작	10,000,000
서울공연예술가들의모임	제13회 서울변방연극제	25,000,000
서현석	망각의 도시	10,000,000
스튜디오 반	오픈시어터	10,000,000
신나라	음악극 Echo	10,000,000
양태석	솔로드럼퍼포먼스2011	10,000,000
오경택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공연	10,000,000
유진규네몸짓	설치공연 (Installation Performance) 유진규의 하얀방	10,000,000
이명일	브라브라브라(BraBraBra)공연	15,000,000
인터미디어퍼포먼스 연구소	인터미디어퍼포먼스Synchronous	15,000,000
일상예술창작센터	2011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15,000,000
임민욱	장소특정적 퍼포먼스 – 불의 절벽(가제)	10,000,000
정금형	정금형 국제 공동 창작 프로젝트	10,000,000
정진아	한국–프랑스 전시기획 프로젝트	10,000,000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입체낭독 – 소설을 보다	10,000,000
코끼리들이 웃는다	Global Rivers Project – 를를를	10,000,000
프로젝트 잔몽	실험음악극 잔몽	10,000,000
한국멀티미디어음악학회	보는 소리, 듣는 영상 VIII	10,000,000
한국실험예술정신 (KoPAS)	제10회 한국실험예술제 (예술도시생성 프로젝트 - 확장 Extension)	35,000,000

첨부자료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할아텍	할아텍+트라이앵글프로젝트	10,000,000
Lim-AMC	2011 잼(JAM)있는 공연	15,000,000

– 2012년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사)문화사회연구소	도시농업공동체와 예술이 만나다 _ 예술텃밭 만들기 프로젝트	8,000,000
(사)비상업영화기구	offandfree 확장예술제	15,000,000
(사)춘천마임축제	2012 무빙스페이스 프로젝트	13,000,000
가슴네트워크	제4회 2012 가슴네트워크축제 “Rookie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 100년”	23,000,000
강화정	죽지마 나도 따라 아플거야	10,000,000
경계없는예술센터	2012 비아페스티벌	20,000,000
공연창작집단뛰다	시골숲속 한여름 밤의 꿈	15,000,000
구정연	Temporary Service	10,000,000
극단 여행자	overlap 핀터	11,000,000
글로벌 메이킹 아트 네트워크	광주국제미디어퍼포먼스아트페스티발	10,000,000
김성용	김성용과써니킴의 협동 프로젝트 vol 2 생성과 소멸	10,000,000
달나라동백꽃	生소리극 뻘	10,000,000
더하우스콘서트 (The House Concert)	2012 제5회 서울프리뮤직페스티벌	32,000,000
독립음악커뮤니티-루비살롱레코드	그림자 콘서트	10,000,000
물레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2012 물레아트페스티벌	15,000,000
박재천	2012 Seoul Meeting FreeMusic	13,000,000
서울변방연극제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25,000,000
성기완	서울 사운드 아카이브 및	8,000,000
스튜디오 반	오픈시어터 2 대한민국 트루먼쇼	10,000,000
양철모	Never Ended Life Diary	10,000,000

첨부자료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옥인 콜렉티브	옥인 인터넷 라디오 스테이션	8,000,000
유진규네몸짓	설치공연 유진규의 까만방	11,000,000
이곤	유리피데스, 한국을 돌아보다.	10,000,000
이은영	월하청영	10,000,000
이인범	세라믹스 코뮌	10,000,000
일상예술창작센터	2012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13,000,000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단편소설입체낭독극장	11,000,000
코끼리들이 웃는다	입정동 아무개입니다.	8,000,000
톨리(toli)	구리거울을 보다	11,000,000
프로젝트이리	2012 문학을 들려주다	9,000,000
한국실험예술정신 (KoPAS)	2012한국실험예술제 – 문학과 만나는	35,000,000
현대음악앙상블 뉴던	현대음악극 '봉산탈춤'	8,000,000
art blender파랑캡슐	파랑병원	10,000,000
FOYER production	강낙현 · 정보경 융 · 복합공연	12,000,000
KolAN (코이안)	뉴미디어 로봇음악극 '로봇타타'	11,000,000
Lim–AMC	2012 잼JAM있는 공연	13,000,000
UBIN Dance	수직의 바다	10,000,000
몸꼴	다원예술분야 지원 창작성과 공유 및 확산 추진 연구사업	22,000,000

첨부자료

2) 기타 지원사업

– 2009년

지원사업명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예술전용공간지원 〉 다원예술매개공간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안문화행동재미난복수	50,000,000
	매개공간 미나리	매개공간 미나리	50,000,000
	청주복합문화체험장	청주복합문화체험장	50,000,000

– 2010년

지원사업명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 〉 매개공간지원	오픈스페이스 도어	도어	15,000,000
	안국동 가옥 레지던시 및 워크숍	안국동가옥	10,000,000
	또다른 저어기 프로젝트	극단Art-3Theatre	25,000,000

– 2011년

지원사업명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공연예술행사지원 〉 다원예술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1	50,000,000
	페스티벌봄	2011 페스티벌 봄 (Festival Bo:m 2011)	60,000,000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활동지원 〉 다원예술	다원예술지 〈옵신〉	다원예술지 옵신	9,000,000
	앨리스온(AliceOn)	뉴미디어 예술 전문지 [더 미디엄] 발간	9,000,000
	한국실험예술정신 (KoPAS)	글로벌 퍼포먼스 아트 심포지움	9,000,000
차세대예술인력 집중육성지원 〉 다원예술	강민숙	이미지 연극(image theater)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 실연(實演)까지	13,000,000
	권수임	권수임-차세대 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원	13,000,000
	김황	인민을 위한 피자(PIZZAS FOR THE PEOPLE) 순회전시 프로젝트	13,000,000
	문유미	아시아의 퍼포먼스 아트 네트워크 강화와 아시아의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13,000,000

첨부자료

지원사업명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이강일	음악과 육체에 관한 앨범 제작 등 5개 사업	10,000,000
	이경성	도시 이동 연구 혹은 연극	13,000,000
매개공간지원 〉 다원예술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예술공작소 F+ 운영	30,000,000
	문지문화원사이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	40,000,000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	30,000,000
	예술공간MOM	예술공간MOM 공간 운영	40,000,000
	부산자연예술인협회	문화창작공간 ARTinNATURE 운영	30,000,000
	안국동가옥	안국동가옥 레지던시 및 워크숍 프로젝트 ver 2.0	20,000,000
	그룹스폰치	문화살롱공 공간운영 지원	20,000,000

– 2012년

지원사업명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활동지원 〉 다원예술	다원예술지 〈옵신〉	옵.신	10,000,000
	일상예술창작센터	일상에서 일상으로 움직이는 일상미학포럼	15,000,000
	art blender 파랑캡슐	다원,융합 예술 연구소 Interdisciplinary art lab 프로젝트	9,000,000
해외예술인초청 기획프로그램지원 〉 다원예술	한국거리예술센터	2012한국거리예술센터 국제교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25,000,000
	헬로우뮤지움	작품감상 새로운 전략 – 해외 예술전문가 초청워크숍	20,000,000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참가지원 〉 다원예술	김백기	Residence Program in Berlin 2012	3,500,000
	김보현	플랙스아트 스튜디오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5,000,000
국제교류중기기획 프로젝트지원 〉 다원예술	김지연	The Third Soundscape : Altavilla Irpina/Tufofield	3,500,000
	서울변방연극제	국제공동제작프로젝트 가제	10,000,000
	신보슬	Acts of Voicing	4,000,000
	김성희	쿤스텐 페스티벌에 한국작품 소개를 위한 플랫폼 구축	10,500,000

첨부자료

지원사업명	단체 및 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공연예술행사지원 〉 다원예술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2	50,000,000
	페스티벌봄	2012 페스티벌봄 (Festival Bo:m 2012)	60,000,000
차세대예술인력 집중육성지원 〉 다원예술	강민숙	이미지 연극(image theater)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 실연(實演)까지	13,000,000
	김황	인민을 위한 피자(PIZZAS FOR THE PEOPLE)순회전시프로젝트	13,600,000
	문유미	아시아의 퍼포먼스 아트 네트워크 강화와 아시아의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13,000,000
	이강일	음악과 육체에 관한 앨범 제작 등 5개 사업	10,000,000
	이경성	도시 이동 연구 혹은 연극	13,400,000
매개공간지원 〉 다원예술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예술공작소 F+ 운영	37,000,000
	문지문화원사이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	36,000,000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	35,000,000
	부산자연예술인협회	문화창작공간 ARTinNATURE 운영	35,000,000
	안국동가옥	안국동가옥 레지던시 및 워크숍 프로젝트 ver 2.0	20,000,000
	그룹스폰치	문화살롱공 공간운영 지원	18.000,000

첨부자료

2. 릴레이 간담회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말하다” 주요 내용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27일(수), 14:00~18:00,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참석자 : 총 11명

구분		이름	직위
외부	연구진	고주영	독립기획자
		신민경	독립기획자
		신혜원	몸꼴 프로듀서/한국거리예술센터 사무국장
		유병진	독립기획자, ‘코끼리들이 웃는다’ 객원기획
	토론자	박창수	더 하우스 콘서트 대표
		이경성	Creative VaQi 대표
		이진엽	코끼리들이 웃는다 대표
		임인자	변방연극제 예술감독
		정진세	극단 문 극작가
내부		김찬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전문위원
		김윤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전문위원

2) 주요 논의내용

☐ 다원예술의 개념

- 다른 장르의 예술보다 총체성을 띈 작업
- 새로운 길을 찾는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예술장르
- 근대적인 예술이라는 것의 상대편에 있는 것

첨부자료

- 소수 엘리트 중심의 개별 장르로 산출된 보편적인 미를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척되고 상대되는 것

□ 다원예술 지원제도/지원심의

- 좀 더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만들어야 함.
- '융합'의 개념 혹은 다양한 가능성을 띤 다른 개념의 작업을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함.
- 다원예술은 특히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두어야 창작(작품)이 나올 수 있음.
- 특정분야의 전문인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개방적인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적합함.
- 과정 중심의 평가가 반영 되어야 함.
- 모니터링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충 및 비평의 틀을 확보해야 함
- 단기간 하나의 프로젝트 지원보다 최소 1년 정도의 장기간 지원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단체별로 서로 매칭을 맺어 2-3년 중장기 지원의 형식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또는 지원받은 많은 사업들이 축제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당시 축제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다원예술매개공간

- 다원예술매개 공간이 필요함. 단,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공간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정 단체의 공간이 아닌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날카로운 지성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

- 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함. 예술과 문화의 개념이 혼동, 미학적 관점이 다양해져 관객 참여/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사람과 전통 미학의 논리를 발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의 다원예술 개념에서 수용하기가 힘든데, 이런 애매함을

첨부자료

최소화하기 위해 융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함.

※ 융복합 프로젝트

실제의 기계적인 물리의 결합이 아닌 화학적인 융합 형태의 새로운 예술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 어떤 장르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 3의 장르를 표방하는 것이 기본 목표임.

※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 특징

공공성을 강조하고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며 공개함. 기록과 후속 연구가 가능한 자료, 분석 보고서, 일정 등을 공유하고 비공개형 워크숍과 중간 점검을 통해 성과를 진단, 보완과정을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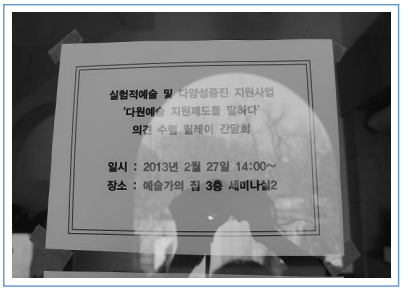
□ 기타 의견

- 다원예술은 장르특성상 비평가도 많지 않고 자료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다원예술의 기반을 다지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발간·연구서적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장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개선이 요구되고 확장의 방식이 중요함.
- 자료 보관/비치가 중요함. 다원예술의 결과자료들을 예술가의집 등에 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내 융복합 플랫폼 필요

첨부자료

3) 사진















첨부자료

3. 오픈포럼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주요 논의내용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12일(목), 15:00~18:00, 대학로 예술가의 집

□ 구성
- '다원예술 현황과 전망' 연구결과 발표
- 지정토론
- 자유토론

□ 참석자
- 사회 :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 연구결과 발표 : 유병진(독립기획자)
- 지정토론 : 김소연(연극평론가), 이철성(비주얼씨어터 꽃 대표), 임인자(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조성주(독립프로듀서)
- 참석 : 연구진, 다원예술 창작자, 지원기관 종사자 등 총 80여명

2) 지정토론 주요 내용

이철성

□ 나는 2004년부터 현장에서 창작자로 활동했고 올해가 10년째이다. 그동안 한국의 다원예술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더디다고 생각한다.

□ 한국의 다원예술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째로 다원예술을 어떻게 창작하는가에 대한 방법은 학교나 교육시스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연극과 무용은 다소 단일한 미학을 가지고 있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연극은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서로 조화하고 호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료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도리어 통합적인 작업을

첨부자료

통한 결과물을 얻게 된다. 텍스트나 이념이 아니라 재료 자체를 탐구하고 창작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한 교육적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장르는 전통적인 형태의 구분을 통해 기능하지만 다원예술은 재료 및 물질 중심으로 범주를 나누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공간 중심적인 창작영역, 몸 중심적인 창작영역, 대중 및 관중을 중심으로 한 창작영역 등이 있을 것이다. 장르 중심에서 재료 중심으로 기준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 또 한 가지는 다원예술 비평의 부재이다. 양적으로 다원예술이 많아졌음에도 비평이 없고, 비평매체가 없으며, 비평은 폭력적이었고 체계가 없었으며, 비평가만이 했다. 이를 바꿔보고자 독립예술창작포럼을 만들었다. 1년차에는 주로 거리예술 작품들을 비평해왔고, 2년차에는 춤을 중심으로 비평하였다. 3년차에는 예술가들이 섭외를 부탁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작품에 대한 검토를 부탁했다는 것은 보다 생산적인 비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창포럼에 참여한 이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선입견을 없이 진행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우선하며 이후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비평을 진행했다. 한 작품을 한 시간 정도 곱씹는 과정이었다. 피드백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욕구 충족, 비평가가 없는 현실에 대항하여 예술가들이 스스로 비평하는 것을 지향한다. 나아가 이 자료들이 아카이빙되어야 할 것이다.

조성주

□ 예술지원제도와 현장이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가 다원예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아닌 다원예술에 대한 오해와 오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지원제도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다. 명시된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하였으나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고 실망하는 창작자들이 있다. 지원제도가 적극적이고 많음에도 개념상의 혼돈 등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 지원제도에 있어서 이상적인 분류는 각 분류 간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빠지는 것이 없어야 한다. 즉, 각 장르 별로 범주와 경계가 넓으면 실제로 다원예술이라고

첨부자료

명확하게 공유하고 부를 수 있는 것만 남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전통적 장르들은 수용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주류 예술의 곁다리에 있는 예술들은 계속 밀려나게 되거나, 혹은 성의 없다는 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지원기관에서는 실험적인 예술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어와 정의가 필요했고 이에 다원예술은 포괄적인 정의를 지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원예술의 정의는 흐릿해지고 고전예술장르들은 협소한 정의를 지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도를 만드는 데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장르의 주류층이다. 따라서 다원예술에 대한 재정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르를 포괄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점의 이행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각 단체와 기관이 타협하고 수긍할만한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인자

- 개인적으로는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장르를 나누어서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물론 연극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눈앞에서 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지에 대해 집중을 많이 했다. 장르에 대해서는 폭 넓게 보되 예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

- 장르적인 매체 실험 및 다른 방식의 무대 활용 등의 작업방식은 이미 2005-6년부터 시작되었다. 제도에 편입되기 전부터 실험적인 활동들이 있었던 것이다. 석수시장 프로젝트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이는 이후 도시미술 프로젝트 등으로 지자체와의 연계 하에 진행되고 있다. 다원예술은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당장의 성과는 얻기 힘들지 모르지만 창작적인 역량의 확장과 예술계를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실다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른 예술의 역할보다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의 예술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 최근 국제교류지원파트 다원예술지원사업의 지원 결과를 보면 한 개의 프로젝트가 6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를 보면 다원예술분야가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것을 짐작할수 있다. 소액다건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이들이

첨부자료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가 수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창작자들이 소액다건이지만 다양한 지원을 받아 이를 통해 공연을 지속하고 작업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 또한 다원예술분야에서는 다원예술의 지원제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을 받아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예술가들의 선택이다. 이러한 것까지 고려해서 실다지 사업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다원예술이 기존의 장르로 수렴되어 가는 것은 안타깝다. 정권 교체 이후 다원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사라지고 연극으로 수렴되는 듯 보인다. 물론 이는 연극이라는 개념의 확장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지원제도는 이와는 다른 입장이어야 한다. 창작 환경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 다원예술분야는 확장가능성이 작다. 매개와 수용은 차단되고 단절되고 있다. 다원예술매개공간에서의 다양한 담론, 매체의 수용은 부족하다. 다시 한 번 정체성 혹은 정체성이 없는 진공 상태를 걷어내고, 다시 지원제도를 구조화했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실험적예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매개할 수 있는지 사회적 관점에서 고민하며 많은 예술가들이 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아직은 단체들이 지닌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체적이고 매개적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증가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에서 아티스트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미학적인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술가 중심으로 실질적인 예술 활동에 귀 기울이고 포용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다.

김소연

□ 다원예술, 정책과 관련된 곳에 나올 때에 평론가로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첨부자료

된 것은 처음이다. 1, 2기 다원예술소위원이었을 때는 비평가로서의 가치관보다는 정책적 합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오늘은 보고서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이를 통해 다원예술의 창작 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보고서에서는 신진예술가에 대한 지원 기준인 35세를 중심으로 연령을 구분하였는데 주어진 연구 환경 하에서는 타당한 기준이었겠으나 다소 연령 구간이 넓었던 탓에 보다 세밀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 같다. 또한 신진예술지원이 줄었다는 점에서도 생각해보면, 2008년 초기 다원예술에 대한 것들이 제기될 때에는 다원예술의 장르적인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원 대상의 범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신진예술지원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원예술 초기 논의와는 달리 신진예술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지원 대상이었던 목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 가치 중심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실다지 분야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가치 지향성이 줄어들고 미학적인 실험이 늘어난 것이 문제인지, 공공예술의 초기 단계에서 예술의 공공성과 관련된 사업이 다양화하고자 했던 목적이 발전하여 좀 더 예술적인 실천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험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지향점을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

□ 지역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 다원예술지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다양한 협력형 사업의 과정이자 영향인 것인지 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 다원예술매개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일상적 지원과 결합된 통합적 지원의 방식이었으나 원래의 의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좋은 지원정책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존 제도들이 어떤 성과와 영향을 남겼는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달라진 창작 환경 속에서 바라보

아야 한다.

□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 포럼을 진행하면 항상 논의의 끝은 다원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어서 다원예술의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 예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공지원제도는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에 초기에는 이러한 경직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다원예술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는 없기에 다원예술의 범주를 정하였던 것이다.

□ 나아가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야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연극, 미술 이외의 아닌 미성숙한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장르적 의미가 있는 예술로서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주와 정의는 늘 새로워져야 한다. 지금의 지원제도는 기존의 정책적인 합의의 결과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한 번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식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 다원예술은 그간 비평이 축적되지 않아 기존의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오해와 불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평이 축적이 되어야 하며 이는 좀 더 명료한 언어들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담는 언어들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매체가 없다는 점에 대해 평론가로서 문제의식을 느낀다. 물론 비평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다원예술 안에서도 가치투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원의 수혜여부 및 새로운가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이것이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논쟁이 더욱 필요하다.

첨부자료

3) 자유토론 –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말하다

사회 : 각자 다원예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조성주

□ 다원예술을 미학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원예술과 실험적 시도를 통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학제 간의 결합 및 제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원적 예술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실험적 시도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원예술의 한 범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실험적 시도 가운데에서도 다원적이지 않은 다른 방식의 작업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관찰을 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 프로젝트, 작품의 개별적 특징들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도록 통계 및 설문 등의 방식으로든 조사를 하고, 다원예술의 분포에 대한 수년간의 관찰 이후 최대한 수용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유지한 가운데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원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 다원예술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창작의 방향 및 방식이 이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한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열린 자세로 창작자들이 스스로 소신껏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성되는 것과 더불어 이후 이들을 열심히 지원해주고 제도적인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철성

□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이 다원예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간을 변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공연 및 설치의 공간에서 어떻게 대안적인 공간으로 나와 공중 앞에 서는가 하는 것이 다원예술의 큰 흐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맞추어 축제나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거리예술축제가 성장한 것도 다원예술을 포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간과 관객에 대해 어떻게 새로운 접근을 할 지 많은 시도를 통해 결합을 모색한다는 점이 거리예술도 다원예술이게 한다.

첨부자료

조성주

□ 관습적으로 인정되었던 전통적인 예술과는 달리 다원예술은 주종 관계가 없이 평등하다. 최소 2개 이상의 학제 및 장르 간 특징 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장르적인 특징인 것 같다. 전통적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점과 위계를 의도적으로 흩고 여러 매체가 가진 위계를 다각적 관점에서 섞은 상태를 작품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짙은 작품과 적은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많은 실험을 했으나 다원적 실험이라기보다는 장르 내부의 비틀기나 재구성, 해체적 실험이었다면 다원적 실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원적 경향이 많고 분명한 것, 애매하거나 훨씬 적은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다. LIG에서는 프로그래밍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

사회 :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열린 자세가 의미하는 바는?

임인자

□ 다원예술은 어떤 예술의 장르보다도 앞서서 나가야 하는 역할과 몫이 있다. 정책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무언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선이 많더라도 보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형식의 소재에 대해 구애받지 않는 것이 예술이라는 정리가 맞는다고 생각한다.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다원예술이라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극장과 미술관 등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시도들뿐만 아니라 사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예술의 움직임들 역시 다원적인 성향이다. 다만 공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창작적 과정의 채택, 어떻게 새로운 예술을 배치할 것인가 등 작품의 의도와 하고자 하는 바를 평가해야 한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의 다원예술이 매체 표현으로서의 실험이라면, 현재는 예술의 배치에 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는 정책적 용어가 더 많아질수록 예술의 한계는 많아질 뿐이다. 예술가들은 이에 배치되더라도 더욱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해야한다. 예술의 감각은 변화하고, 열려있어야 한다. 덧붙이면 본 연구에는 떨어진 작품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첨부자료

플로어

□ 예술을 실행하는 자들은 장르의 규명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가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범주를 정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정책에 맞추어 필요한 정도일 뿐이다. 다원예술 자체에 대한 정의는 훨씬 더 열려 있어야 한다.

조성주

□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질문자의 이야기와 좀 다르다. 작품이 지원제도 안에서 의도와 심의의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실험하려고 하는 모색 외에도 관객과 홍보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좋은 의도로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제도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유도하고자 할 때는 도리어 혼선을 야기한다. 이 경우 심사는 용이하고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각 프로젝트가 포괄하고 있는 생각과 사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포괄하기 힘들다. 왜 하려고 하는지가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만들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일까에 대한 어필만을 하게 된다. 우리의 제도는 중립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따라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것이 사실이다.

플로어

□ 직접지원인지 환경에 대한 지원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다원예술 창작자를 지원하는 것인지, 축제, 매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지 구분했으면 한다. 제도는 굳이 특정 용어를 써야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다양한 매체와 예술적 행동에 대한 지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술의 매체, 형태, 등에 대한 구분이 더 크게 확장되어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자료

김소연

□ 예술지원은 수월성, 탁월함에 대한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과 정책이 이러한 사항을 다 포괄하기는 힘들다. 제한적인 자원 안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원예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는 정의가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다원예술은 정의라기보다는 범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원예술은 정의가 아니라 유연한 의미를 지닌 합의점이자, 특정 성향과 범주라고 생각한다. 창작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초기 논의와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제도라는 것은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합의의 과정은 공개적인 참여의 방식으로 오픈 플랫폼을 형성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며 발전해야 한다. 완벽하게 모든 필요한 예술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계점을 인정하고 점차 세밀한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다원예술의 기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이를 끌고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계속 입증해야 한다. 실다지가 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때로 수긍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술적 기여 등을 더욱 분명하게 해서 발전시킬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하고 싶다. 위원회가 이 사업을 규정해서 다원예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없다. 다만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여건을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공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사업에 대한 비판이 많은 점은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성 장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실험성, 예술의 종다양성을 증진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현 제도

첨부자료

의 핵심인 셈인데 효과적으로 좋은 사업 성과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으나, 쉽게 정답을 찾기 힘들다.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것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도적인 진행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플로어

□ 창작자의 입장이었기에 이러한 제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나는 관객들이 작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지원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평의 책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평론가들이 다원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는지 고민이 된다. 지금까지 기획자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 다원예술에 기여하고 있으나, 작품을 본 평론가도 적고 평론을 받아본 적도 적은 점은 애석하게 생각한다. 평론은 또한 20세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며, 기존의 장르적인 한계를 그대로 가진 채로 자극적인 멘트를 통해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신진예술과 다원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섞이면서 다원예술이 단지 젊은이들이 도전과 열정으로 어설프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실제로는 다원예술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다원예술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과 기준들이 공평하고 균형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플로어

□ 공연 창작자로서 다원예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자리였다. 직접적인 작업 목적이 지원서의 항목에 좀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왜 당신의 예술이 새로운지, 왜 탈장르적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작품을 왜 하고자 하는지를 묻는 항목은 부족하다. 장르적인 세련됨은 스타일에 대한 평가임에도 잘 만들어진 스타일을 룰 모델로 하여 결과물을 통한 평가를 지향하기에 창작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질문의 항목이 단순해지고, 왜 융합이고 실험적인지, 왜 복합적인지는 온전히 평가자들이 판단했으면 좋겠다. 창작활동을 평가에 맞추고 싶지는 않다.

첨부자료

플로어

- 정책에 관심이 많은 창작자이다.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지원금의 존재 여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작품에 대한 인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에 관심이 많기 마련이며 정책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사의 경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심사했는지가 궁금했고, 명확한 기준과 단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심사하는지 분석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다원예술이 장르로 구분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소통하고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장르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원예술 및 실다지의 역할은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신청서의 포맷은 이런 예술가들에게 맞지는 않다.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은 수많은 논쟁과 소통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가치에 대한 것은 논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결과를 가지고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이 지원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원 신청서의 포맷, 기준, 지원 방식과 피드백 등 총체적인 정책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김소연

- 정책보고서 상에 미션을 잘 적는 것보다 작품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작품 말고 선정의 기준이 되었던 심사자에 대한 분석이 도리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는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자들을 포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현황파악을 해야 한다.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 심사가 심사자의 성향에 대해 달라진다면, 도리어 현장 평가의 언어들을 분석함으로서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여 다원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향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임인자

- 제도에 부합하도록 예술을 맞추어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예술이 이런

첨부자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각 영역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되 자유로이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 정책과 지원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자기 검열이고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언어적인 차이를 지니기 마련이다.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간극이 좁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은 향후 이야기를 이어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김한상, 「한국 동시대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창작주체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 논문, 2011
2. 이승효, 「2000년대 한국의 다원예술을 둘러싼 고찰-사회와 마주하는 새로운 태도 혹은 형식의 발명」, 도쿄예술대학 예술환경창조과 석사논문, 2011
3. 안진주, 「다원예술의 예술지형에 대한 파급효과와 전망」,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 「지금의 예술, 다가올 예술」, 2010 예술충전자료집, 예술경영지원센터
5. '다원예술, 그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정책릴레이토론회, 2008
6. 김태은,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7.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8. _____ 외 「다원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9. 우주희,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0. 이규석, "다원예술, 다원예술 10년, 발전적 전환기를 맞이한 2005년",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11. 안영노, 김소연 외,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다원예술분야 지원 창작성과 공유 및 확산(2009–2012)

arts change the world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2013. 4

창립 40주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73-2013